

백범일지

주미경 글 · 원유미 그림



백범일지

주미경 글 · 원유미 그림

목차

1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1. 어린 시절
2. 아기 접주
3. 청계동 스승 고능선
4. 치하포에서
5. 인천 감리서에서
6. 탈옥수 김창수

2부 교육자의 길에서

1. 마곡사의 중
2. 김구가 되어
3. 아버지의 죽음
4. 교육자로서의 꿈과 결혼
5. 다시 감옥으로
6. 백범이 되어
7. 농촌 운동

3부 임시정부와 독립 운동

1. 임시정부를 찾아서
2. 국무령이 되어
3. 한민애국단과 이봉창
4. 윤봉길과 홍커우 의거
5. 쫓기는 김구
6. 떠도는 임시정부
7. 가슴에 박힌 총알
8. 자랑스러운 광복군

4부 통일 운동의 길에서

1. 조국의 품으로
2. 신탁 통치 반대 운동
3. 38선을 넘어
4. 400명의 어린 백범이 되어

1부 |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1. 어린 시절



1876년 8월 29일 새벽이었다. 김구의 아버지는 소 등에 엮은 안장을 머리에 쓰고, 지붕 위에 앉아 소 울음소리를 냈다.

“음매, 음매에!”

이렇게 하면 뱃속의 아기가 빨리 나온다고 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김구다.

김구의 어린 시절 이름은 창암이었다. 젓이 모자라 창암이가 칭얼대면, 아버지는 창암이를 안고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젓을 얻어 먹였다.

창암이가 다섯 살쯤 되었을 때였다. 동네에 엿장수가 왔다.

“엿 사시오! 엿! 찌그러진 그릇, 부러진 숟가락, 다 가져오시오!”

창암이는 엿이 먹고 싶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엿장수들이 아이들의 고추를 떼 간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창암이는 방문을 달아걸고 큰소리로 엿장수를 불렀다. 그리고 문 구멍으로 부러진 숟가락을 내밀었다. 그러자 엿장수가 그 구멍으로 엿 뭉치를 넣어 주었다. 창암이는 달짝지근한 엿을 맛있게 먹었다. 그 일로 창암이는 아버지에게 혼쭐이 났다.



얼마 후 창암이는 아버지가 숨겨둔 엽전 꾸러미를 챙겨서 떡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집안 할아버지 한 분과 딱 마주쳤다.

“창암아, 돈을 가지고 어딜 가는 게냐?”

“떡 사 먹으러 가요!”

할아버지는 돈을 빼앗아 아버지에게 가져다주었다. 그날 창암이는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다.

장맛비가 내린 날, 집 근처에 작은 개울이 생겼다. 창암이는 어머니가 쓰는 붉은색과 푸른색 염색 물감을 개울에 풀었다. 그리고 푸른 내와 붉은 내가 서로 섞이는 것을 정신없이 구경했다.

창암이가 열두 살쯤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창암이는 집안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다.

“허 참, 어떤 양반이 갑자기 내 갓을 빼앗더니 찢어버리지 뭐가.”

양반도 아닌 상민이 갓을 찢었다고 그랬다는 것이었다. 창암이가 화가 나서 물었다.

“어째서 그 사람은 양반이고, 우리는 상민입니까?”

“그 집에는 진사가 세 사람이나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진사가 되는데요?”

“그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급제를 해야지.”

창암이는 양반이 되리라고 결심했다. 그즈음 창암이는 한글을 익혀서 이야기책을 읽을 수 있었다. 천자문도 조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시험을 보려면 더 공부를 해야 했다.

창암이가 서당에 보내달라고 아버지를 졸랐다. 아버지는 집 사랑방에 아이들을 모아 서당을 열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값으로 쌀과 보리를 주기로 하고 선생님을 모셔 왔다. 창암이는 새벽 일찍부터 서당에 나가서 먼저 공부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친구들한테 배운 것을 가르쳐 주었다.

얼마 뒤 이웃 마을로 서당을 옮기게 되었다. 창암이가 아침마다 고개를 넘어서 서당에 갔다.

“외우기 시험은 또 창암이가 일등이구나. 잘했다.”

선생님이 창암이를 칭찬하곤 했다. 그런데 며칠 뒤 집주인이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쫓아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자기 아들이 창암이보다 공부를 못하자 샘이 나서 그런 것이었다. 선생님과 헤어지는 날 창암이는 선생님 품에 매달려 울었다.

그 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 가난한 살림에 아버지의 약값까지 들어가다 보니 집은 더욱 어려워졌다.

“창암아, 아버지 병을 고치려면 이름난 의원을 찾아다녀야 할 것 같구나.”





부모님은 창암이를 큰집에 맡기고 떠났다. 창암이는 사촌들과 소를 끌고 산과 들을 돌아다녔다.

다행히 아버지의 병이 나아져서 가족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겨우 집을 마련했다. 어머니가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번 돈으로 먹과 붓을 사주었다. 창암이는 그 먹과 붓을 들고 다시 서당에 다닐 수 있었다.

창암이는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었다. 마침 학골에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했다. 아버지가 찾아가서, 창암이가 공짜로 배울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선생님이 선뜻 허락해 주었다. 창암이는 뭇 듯이 기뻐다. 날마다 험한 산 고개를 넘어서 공부하러 다녔다.

어느덧 창암이가 17살이 되었다. 해주에서 과거시험이 있다는 발표가 났다. 창암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갔다. 그러나 실망만 하고 돌아왔다. 과거시험은 실력만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었다.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치러주기도 하고, 남의 글을 베껴서 내기도 했다.

창암이는 더 이상 과거 공부는 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관상 공부를 해보라고 했다. 관상은 얼굴 생김새를 말하는데, 얼굴을 살피면 그 사람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다고 했다.

“관상을 공부하면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을 게 아니냐?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게다.”

그날부터 창암이는 관상책을 읽었다. 창암이는 거울을 앞에

놓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면서 공부했다.

거울을 보던 창암이가 중얼거렸다.

“어쩜 이리 못났을까. 돈과 높은 지위를 얻을 만한 얼굴이 아냐.”

그러던 어느 날 창암이는 관상책을 뒤적이다가 이런 구절을 보았다.

얼굴이 좋은 것보다 몸이 좋은 것이 낫다.

몸이 좋은 것보다 마음이 좋은 것이 더 낫다.

마음에 쏙 드는 말이었다. 창암이는 관상이 좋은 사람보다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창암이는 알 수가 없었다.

1부 |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2. 아기 접주



그즈음 동학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동학교도 오웅선이란 사람 얘기 들었소? 그 사람은 벽으로 드나든다더군.”

“공중에 붕 떠서 걸어 다닌다며? 정말일까?”

창암이는 동학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18세가 되었을 때, 창암이는 새 옷을 차려입고 오웅선을 찾아갔다. 오웅선은 창암이에게 인사를 하더니 높임말을 했다.

창암이가 놀라서 물었다.

“어찌 아이에게 높임말을 합니까?”

“우리 동학은 ‘모든 사람은 하늘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모두 하늘처럼 귀하며 평등하다는 말이지요. 신분이 높고 낮음도 따지지 않습니다.”

창암이는 막혔던 속이 뽕 뚫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 양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었던 억울했던 일들이 생각났다. 과거 시험장에서 겪었던 실망스러운 일들도 떠올랐다.

“바로 이거야. 동학이 만들려는 평등한 세상이 바로 내가 꿈꾸던 세상이야. 그 길이 마음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이야.”

집으로 돌아온 창암이는 아버지에게 오웅선의 얘기를 했다.

“평등한 세상이라니, 좋구나.”

창암이와 아버지는 같이 동학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름을 창수라고 바꾸었다.¹⁾

창수는 동학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주위에도 널리 알렸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창수를 따르게 되었다. 일 년도 되지 않아서 창수는 천여 명의 동학교도들을 거느리는 접주가 되었다. 한 지방의 동학교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접주라고 불렀다.

“자네 아기 접주 얘기를 들어봤나?”

“암 듣고말고. 나이도 어린데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서?”

아기 접주는 바로 창수의 별명이었다.

1894년 가을이었다. 창수는 황해도 대표로 뽑혀서 동학 교주인 최시형을 만나러 갔다. 최시형은 맑은 얼굴로 창수를 반겨 주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전라도 고부에서 접주 전봉준이 다시 군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해 봄 전봉준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혼내주기 위해 농민들과 함께 들고 일어났다. 그 후 관군은 일본군과 힘을 합하여 동학교도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었다.

최시형이 벌떡 일어났다.

“호랑이가 덤빈다고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요. 참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워야지요!”

창수는 곧바로 해주로 돌아왔다. 황해도에서도 양반과 관리들이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다. 창수는 황해도 접주들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

창수는 팔봉산 아래 산다고 해서 접 이름을 팔봉이라고 지었다. 푸른 비단에 ‘팔봉’이라고 큼지막하게 썼다. 그리고 왜놈과 서양 오랑캐를 몰아낸다는 뜻인 ‘척왜척양’을 써서 높이 내걸었다.

“해주성을 먼저 공격 합시다!”

창수는 적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려 주는 방법을 공부한 적이 있었다. 게다가 창수의 동학군에는 산포수가 700여 명이나 있었다. 그래서 비록 어리지만 창수의 동학군이 맨 앞에서 싸우기로 했다. 작전도 창수가 짰다.

창수는 말을 타고 쏜살같이 해주성으로 달려갔다.

“백성을 괴롭히는 못된 관리를 혼내 주자!”

“왜놈을 몰아내자!”

그런데 관군과 일본군은 동학군이 공격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신식 총을 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동학군을 공격했다. 동학군의 구식 총은 총을 쏘는 과정이 복잡하고 멀리서는 쓸 수가 없었다. 게다가 동학군은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다. 창수의 동학군은 열심히 싸웠지만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창수는 훈련된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정덕현이란 사람이 창수를 찾아왔다. 정덕현은 강한 동학군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동학군이 백성들의 것을 뺏으면 큰 벌을 주시오. 그리고 구월산으로 가서 훈련을 시키시오. 또 어진 사람을 모셔 와 곁에 두시오.”

창수는 눈이 번쩍 뜨였다. 정덕현을 참모로 임명하고 동학군을 구월산으로 옮길 준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청계동에 사는 안태훈 진사가 사람을 보냈다. 안 진사는 학문이 뛰어난 선비였다. 그는 가까운 곳에서 관군을 도와 동학군과 싸우고 있었다. 훗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쏜 안중근이 그의 맏아들이었다.

“안 진사께서 김 접주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으셨습

니다. 그래서 안 진사께서는 김 접주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든 먼저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어려워지면 서로 돕기로 하지요.”

그렇게 창수는 안 진사 쪽과 비밀 약속을 했다.

창수는 동학군을 구월산으로 옮겨 훈련을 시켰다. 구월산 근처에 접주 이동엽의 동학군도 있었는데, 세력이 꽤 컸다. 어느 날 이동엽의 부하가 마을 사람들을 괴롭혀서 창수의 동학군이 혼썰을 내주었다.

얼마 후 이동엽의 동학군이 창수의 구월산 기지로 들이닥쳤다. 그때 창수는 홍역을 앓고 있어서 싸울 수가 없었다. 이동엽은 창수가 아끼던 부하를 죽이고 창수는 살려 주었다. 창수는 명주 저고리를 벗어서 죽은 부하를 감싸주며 큰 소리로 울었다. 동학 접주가 되었다고 어머니가 지어준 명주 저고리였다,

그 후 동학군들은 잡혀가거나 뿔뿔이 흩어져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창수도 정덕현의 도움으로 몽금포 근처 마을에 숨어 지냈다.

“이제 어찌면 좋겠소?”

정덕현이 말했다.

“안 진사를 찾아가시오. 어려울 때 돕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창수는 망설이다가 정덕현과 함께 안 진사를 찾아갔다.

1) ▶ [동학·의병 활동 관련 전시 보러가기](#)

1부 |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3. 청계동 스승 고능선



청계동은 험한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다. 안 진사는 창수를 친절하게 맞아 주었다.

“소식을 몰라 궁금했는데, 잘 오셨소. 부모님도 이곳으로 모셔 오는 게 어떻겠소?”

“부모님 생각에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감사합니다.”

안 진사는 사람을 시켜 부모님을 모셔 오게 했다. 그리고 청계동에 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다. 창수는 안 진사 덕분에 청계동에서 부모님과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안 진사가 창수에게 말했다.

“날마다 내 사랑방에 와서 노시게. 내 동생들과 얘기도 나누고, 책도 보고 그리시게.”

안 진사의 여섯 형제는 모두 학식과 인품이 뛰어났다. 특히 안 진사는 상대방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아랫사람에게도 친절해서 모두 그를 좋아했다.

창수는 안 진사의 집에서 그의 맏아들인 안중근을 보았다. 창수보다 세 살 적었는데 결혼해서 상투를 틀고 있었다. 안중근은 붉은 명주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사냥하러 다녔다. 참 영리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창수는 안 진사의 사랑방에서 고능선을 만났다. 고능선은 학식이 높고 품행이 바르기로 이름난 학자였다.

어느 날 고능선이 창수에게 던지시 말했다.

“내 사랑방도 구경하러 오시게.”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창수는 다음날 바로 고능선의 집을 찾아갔다. 고능선의 사랑방은 온통 책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와 세상일도 이야기하고 학문도 배우고 그러세.”

창수는 고능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저는 이제 스물인데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그 마음만 변치 말게. 끊임없이 고쳐서 더 나아지려고 하게. 그러면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는 날이 올 걸 세.”

창수는 날마다 고능선의 사랑방을 찾았다. 고능선은 자신이 공부해서 깨달은 것들을 창수에게 들려주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의리에서 벗어나선 안 되네.”



“네, 선생님. 의리를 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창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새롭게 배웠다.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웠다.

어느 날 고능선이 말했다.

“일을 할 때는 판단, 실행, 계속의 세 단계를 밟아야 하네.”

그리고 시 한 구절을 읊어주었다.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마저 놓는다면 가히 대장부рода.”

돌아오는 길에 창수는 시구절을 되뇌어 보았다.

‘벼랑에서 잡은 손을 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창수의 눈빛이 빛났다.

‘그래.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서 실천하라는 말씀일 거야.’

창수는 시구절을 가슴에 깊이 새겼다.

어느 날 고능선은 나랏일 얘기를 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 나라가 걱정일세. 나라가 망하면, 땅도 백성도 주권도 모두 빼앗기는 것이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는 왜놈에게 망하고 말 걸세. 높은 관리들은 다른 나라에 굽실거리고만 있으니...”

창수가 놀라서 물었다.

“스승님,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하네. 청나라는 일본을 미워하니 반드시 일본을 칠 것이네. 뜻있는 사람들이 미리 청나라에 가서 그곳 사정을 익혀 놓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창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당찬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바람도 쉴 겸 청나라에 다녀오겠습니다.”

창수는 청나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때 마침 참빗 장수 김형진을 만났다. 그는 남원 지역의 동학 접주였는데, 참빗 장수로 꾸미고 떠돌고 있었다. 마음이 맞은 두 사람은 함께 청나라로 떠났다.

1부 |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4. 치하포에서



그 무렵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세력이 점점 커졌다. 명성황후는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러시아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던 일본은 명성황후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러다 큰일이 터졌다. 1895년 8월, 칼을 찬 일본인들이 궁궐에 쳐들어가서 명성황후에게 칼을 휘둘렀다. 분노한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나섰다. 나라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그때 창수는 김형진과 참빗 장수로 꾸미고 함경도 지방을 거쳐 만주 지역을 지나고 있었다. 그곳에서도 산포수들을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났다.

“우리도 함께 싸웁시다!”

창수와 김형진도 의병에 들어갔다. 창수는 화약을 나르고 산포수들을 모으러 다녔다. 화약을 지고 겨울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창수는 의병과 강계성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강계성에 있던 장교가 도와주기로 했다. 의병이 뚝뚝 언 강을 건너 성 근처에 도착했다. 그런데 도와주기로 했던 장교가 맘을 바꾸었다. 갑자기 숲에서 의병을 향해 총탄이 쏟아졌다. 창수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나고 말았다.

창수는 청나라로 가려던 발길을 돌려 다시 청계동으로 돌아왔다. 고능선을 찾아갔더니 뜻밖의 얘기를 했다.

“자네도 결혼을 할 때가 된 것 같네. 내 손녀는 어떤가?”

창수는 스승의 손녀가 맘에 들었다. 교육도 잘 받고 성품도 좋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전에 술에 취해 함지박 장수의 딸을 며느리로 삼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창수의 결혼 소식을 듣고 그 함지박 장수가 뒤편을 놓았다. 그래서 창수는 그 결혼을 할 수 없었다.

그 무렵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가 나랏일을 보고 있었다. 김홍집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외교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일본의 힘이 커지자 김홍집은 점점 일본 편에 서서 나랏일을 보았다.

어느 날 단발령이 내려졌다.

‘상투를 없애고, 머리카락을 서양식으로 짧게 자르시오!’

관리들이 시장에서 사람들을 잡아서 강제로 머리를 잘랐다. 온 나라가 들썩였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머리를 자르라니!”

“어림없는 소리!”

사람들은 김홍집의 개화파가 일본 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단발령은 일본이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양반, 상민 할 것 없이 모두 단발령에 맞섰다.

창수는 고능선과 안 진사를 찾아갔다.

“우리 국모를 죽이더니, 이제는 머리를 깎으라니요! 의병을 일으켜야 합니다.”

안 진사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섰다가는 실패하고 말 걸세. 나는 천주교를 배우면서 기회를 엿보겠네.”

창수는 안 진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안 진사는 의리를 중요시하는 선비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동학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서양 학문인 천주교를 배운다니. 그것은 의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고능선이 안 진사에게 물었다.

“안 진사, 단발령을 두고만 보자는 것인가?”

“머리를 깎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고능선이 별떡 일어났다.

“안 진사, 오늘부터 나를 찾아오지 말게.”

그 일로 창수는 안 진사와 멀어졌다. 그 후 고능선은 고향 해주로 돌아가고, 창수도 부모님을 모시고 텃골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창수는 김형진을 찾아갔다. 사람들을 모아 단발령을 반대하는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지만, 들키고 말았다. 창수는 몸을 피하기 위해 다시 청나라로 향했다.

그런데 평안남도 안주에 도착해보니 단발령을 중지한다는 공고가 붙어 있었다. 단발령 때문에 나라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명령을 거둔 것이었다.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어. 나라 밖으로 나가느니, 나라 안에서 할 일을 찾아보자.”

창수는 다시 발길을 돌렸다. 치하포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탔

다. 강물 위로 얼음덩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결국 배가 강한가운데서 얼음덩이들 속에 갇히고 말았다.

“배가 꿈쩍 못하게 생겼네.”

“이러다가 강에 빠져 얼음 귀신이 되겠어.”

사람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렸다. 그때 창수가 사람들을 헤치고 나섰다.

“자, 힘을 합쳐서 얼음덩이를 밀어냅시다.”

창수가 큰 얼음덩이 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그리고 사람들과 힘을 합쳐 큰 얼음덩이로 작은 얼음덩이를 밀어내면서 뱃길을 열었다.

“어린 사람이 힘이 장사구만.”

나룻배는 가까스로 강의 가장자리에 닿을 수 있었다.

날이 썰 무렵 창수는 나루터 주막에 들렀다. 창수는 사람들 틈에 누웠다가 왁자지껄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때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짧은 머리에 한복을 입었다. 황해도에 산다는 정 씨라는데, 경성(서울) 말을 썼다. 아무리 봐도 조선 사람 같지 않았다. 찬찬히 살펴보니, 두루마기 밑으로 칼집이 보였다.

‘저놈은 분명 왜놈이다. 그런데 왜 변장을 하고 다닐까?’

그곳 일본인들은 일본 옷을 그대로 입고 다녔다. 조선 사람으로 변장을 한 것이 수상했다.

‘저놈이 국모를 죽인 왜놈이 아닐까. 그놈이 아니더라도 칼을

차고 숨어 다니는 왜놈은 위험해. 우리 민족에게 해로운 놈일 거야!’

창수는 그를 없애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가슴이 마구 뛰었다.

‘패거리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군. 게다가 나는 빈손이야.’

그때 고능선 선생이 들려준 시구절이 떠올랐다.

‘가지를 잡고 나무에 오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을 수 있다면 대장부다.’

창수는 지금이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죽을 각오로 덤벼 보리라고 결심했다. 그러자 이런저런 피가 떠올랐다.

창수는 시치미를 떼고 큰소리로 주인을 불렀다.

“오늘 하루 칠백 리 산길을 넘어야 하오. 아침밥을 든든히 먹어야 하니, 밥상 일곱 개를 차려주시오!”

일본인의 마음을 놓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었다. 창수는 그의 움직임에 살피면서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 그가 밖으로 나가더니, 같이 온 사람이 밥값 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때다!’

창수는 잽싸게 몸을 날려 그의 가슴을 걷어찼다.

“이놈!”

일본인이 마당으로 나동그라졌다. 창수가 달려가서 그의 목을 힘껏 밟았다. 주막의 방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다보았다.

창수가 소리쳤다.

“누구든지 이 왜놈을 위해 덤비는 자는 모두 죽여 버리겠다!”

그때 일본인이 빠져나와 칼을 빼 들고 창수에게 달려들었다. 창수는 칼을 피하면서 옆구리를 걷어찼다. 그리고 칼을 빼앗아 그를 죽였다.

창수는 일본인의 소지품을 조사했다. 쓰치다라고 하는 일본 군 중위였는데, 엽전 800냥을 가지고 있었다. 창수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써서 큰길가에 붙였다.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왜놈을 죽였노라.’

해주 백운방 텃골 김창수.²⁾

그리고 그곳을 떠났다.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이 급했다. 누가 달려와서 길을 막아설 것 같았다. 하지만 일부러 느릿느릿 고갯마루로 올라갔다.

2) ▶ [치하포의거 관련 전시로 이동](#)

1부 |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5. 인천 감리서에서



창수는 텃골로 돌아왔다. 아버지에게 치하포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놀란 아버지가 창수의 등을 떠밀었다.

“어서 몸을 피해라.”

“아버지, 저는 조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떳떳하게 맞서고 싶습니다.”

창수는 석 달 후 집에서 체포되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서 해주 감옥에 갇혔다. 부모님이 해주까지 따라왔다. 어머니는 밥을 얻어다가 넣어 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힘써 줄 만한 관리들을 만나러 다녔다.

창수의 심문이 시작되었다.

“치하포에서 일본인을 죽이고 도적질을 했느냐?”

“그런 적 없소.”

그러자 창수를 고문했다. 창수의 다리 사이에 몽둥이 두 개를 넣고 양쪽에서 힘껏 내리눌렀다. 참다못해 창수는 기절하고 말았다.

두 달 후 창수는 인천 감리서로 옮겨졌다. 옥바라지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아버지는 집을 팔기 위해 고향으로 갔다. 어머니만 창수를 따라나섰다.

나진포에서 인천으로 가는 배를 탔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순검이 잠이 들자, 어머니가 창수를 배의 가장자리로 데리고 갔다.

“얘야, 인천에 닿으면 너는 왜놈 손에 죽을 게야. 차라리 나랑

저 맑은 강물에 빠져 죽자. 그래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같이 다니자.”

창수가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제가 한 일은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하늘이 도울 테지요. 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겨우 마음을 바꾸었다.

“네 아버지하고 약속했다. 네가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자고 말이다.”

어머니는 하늘을 향해 간절하게 무언가를 빌고 또 빌었다.

창수는 인천 감리서에 갇혔다.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창수의 옥바라지를 했다. 창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다.

“내가 태어날 때도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여름이라 날씨는 무덥고 감옥은 더러웠다. 창수는 장티푸스에 걸리고 말았다. 창수는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마침내 심문이 시작되었다.³⁾ 몸이 아팠던 창수는 교도관의 등에 업혀 경무청으로 들어섰다.

경무관이 창수에게 물었다.

“치하포에서 일본인을 죽인 적이 있느냐?”

창수가 당당하게 말했다.

“그렇소.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왜놈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범정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곳에 와타나베란 일본인이 감시하러 와 있었다. 창수가 와타나베에게 소리쳤다.

“이놈, 잘 지내자고 약속해 놓고, 그 나라 황후를 죽이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 나라 왕을 죽여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그러자 와타나베가 슬그머니 나가버렸다. 창수는 조선인 관리에게도 거침없이 소리쳤다.

“나는 왜놈을 죽여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소. 그런데 나랏돈을 받는 그 많은 벼슬아치들은 도대체 무얼 하는 것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관리들이 아무 말도 못 했다. 창수가 심문을 마치고 나오자 구경꾼들이 몰려왔다.



“저 사람이 창수란 사람인가? 관리들을 큰소리로 꾸짖었다며?”

“나이기도 어린데 대단하군.”

창수를 업고 가던 교도관이 어머니를 알아보고 한마디 했다.

“호랑이 같은 아들을 두셨소.”

그 후 창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어머니에게 옥 바라지에 쓰라고 돈을 보내고 음식을 넣어 주었다. 모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창수를 응원했다.

“용기가 참 대단하시오. 풀려나면, 꼭 한번 찾아오십시오.”

그들이 넣어 준 음식은 다른 죄수들과 나누어 먹었다. 밥을 얻어먹은 죄수들은 창수를 좋아하며 따랐다.

인천 감리서에 있는 동안 창수는 책을 열심히 읽었다. 누가 서양 역사와 세계 지리에 관한 책을 넣어 주었다.

“넓은 생각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소. 남의 것이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하오. 그래야 우리나라도 더 나아질 것이요.”

창수는 그 책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창수는 안 진사와의 일이 떠올랐다.

‘서양의 학문인 천주교를 배운다고 발길을 끊다니…’

창수는 그때의 일이 부끄러웠다. 창수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싶었다. 문득 죄수들을 둘러보았다.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 이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자.’

그런데 죄수들은 시큰둥했다. 창수에게 음식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서 싫다는 소리는 못하고 배우는 척했다. 그러다가 죄수들은 점점 배우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 점점 더 많은 죄수들이 창수 주위에 모여서 글을 배웠다.

당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김창수가 들어간 후 인천 감리서가 학교가 되었다.’

그 무렵에는 큰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았다. 창수는 죄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써 주었다. 밤이 되면 죄수들과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인천 감리서(1880년대)

1부 |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6. 탈옥수 김창수



그해 7월이었다. 신문에 ‘김창수를 사형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창수는 어찌 된 일인지 두렵지 않았다. 그동안 죽을 각오를 여러 번 했었기 때문인지 마음이 편안했다.

창수는 그날도 다른 날처럼 책을 읽고 저녁밥을 먹었다. 그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 죽으러 갈 때가 됐구나.’

옆에 있던 죄수들이 자기들이 죽으러 가는 것처럼 벌벌 떨었다. 그런데 갑자기 감옥 뜰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제 김창수는 살았소!”

“황제 폐하께서 김창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소!”

소식을 전하는 관리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죄수들도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아들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네.”

인천으로 가는 배에서 창수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뒤 김주경이란 사람이 창수를 찾아왔다.

“내가 당신의 석방을 위해 나서 보겠소. 그러니 몸조심하고 있으시오.”

김주경은 강화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다. 높은 관리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주경은 창수의 석방을 위해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그는 힘 있는 관리를 찾아다녔다.

“김창수 같은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야 그렇지요. 그런데 일본 쪽에서 김창수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고 있으니…”

모두 머뭇대기만 했다. 김주경도 더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창수에게 시를 한 수 적어서 보냈다.

‘새장을 벗어나야 좋은 새고, 그물을 뛰어넘어야 뛰어난 물고기입니다.’

시의 내용은 탈옥을 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창수는 탈옥하는 것보다 감옥에 남는 편이 더 떳떳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죄수들이 창수에게 탈옥시켜 달라고 울면서 졸라댔다.

“선생님이야 임금님의 명령만 있으면 곧 나가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아니에요. 이곳에서 시달리다 죽고 말 겁니다.”

창수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흔들렸다.

‘임금님께서도 내게 죄가 없다고 했다. 또 여러 사람이 나를 석방시키려고 애를 썼다. 내가 감옥에서 죽는다면, 왜놈들만 기뻐

할 것이다.’

창수는 마침내 감옥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창수는 아버지에게 쇠창살을 구해다 달라고 했다. 아들의 말뜻을 알아챈 아버지가 옷에 싸서 쇠창살을 넣어 주었다.

1898년 3월 9일, 날이 저물었다. 창수는 미리 준비해둔 돈으로 교도관에게 술과 고기를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저녁밥을 가지고 온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오늘 밤 감옥에서 나갈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그날 밤 감옥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죄수들은 굶주리고 있던 참에 술과 고기를 실컷 먹었다. 그리고 시끌벅적하게 노래를 불러댔다. 교도관은 창수가 준 돈으로 아편을 사서 몰래 피우러 가고 없었다.

창수는 어슬렁거리다가 슬쩍 마루 밑으로 내려갔다. 벽돌을 들어내고 쇠창살로 굴을 파서 밖으로 나왔다. 살금살금 담장으로 가서 줄사다리를 걸쳐놓았다. 그리고 도로 들어가서 같이 탈옥하기로 한 죄수들을 불러냈다.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을 한 명씩 담을 넘도록 도와주었다.

마지막으로 창수가 담을 넘을 차례였다.

“우당탕!”

담장 너머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뻑! 뻑!”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다. 다급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창수는 재빨리 긴 작대기를 찾아 들고 훌쩍 몸을 솟구쳤다. 겨우 담장을 넘었다.

‘내 앞을 가로막으면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

창수는 정문으로 뛰어나갔다. 그런데 정문 앞이 텅 비어 있었다. 창수는 정문을 통해 당당하게 인천 감리서를 빠져나왔다. 창수가 23세 되던 해였다.

2부 | 교육자의 길에서

1. 마곡사의 중

창수는 당장 고향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이제 도망자 신세였다. 창수는 장티푸스로 다 빠지고 새로 난 머리를 노끈으로 졸라맸다. 그리고 길을 물어 물어서 서울로 향했다.

어느 날 멀리 순사와 교도관이 보였다. 창수는 얼른 소나무 밑에 숨어 나뭇가지로 얼굴을 가렸다.

“김창수는 어디로 갔을까? 아마 제일 잡기 힘들걸?”

“탈옥하길 잘했지. 과연 장수야, 장수.”

창수는 시골 마을 길만 골라서 다녔다. 오랜만에 넓은 세상에 나오니 상쾌했다. 감옥에서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갔다.

서울에 도착한 창수는 인천 감리서에서 사권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들이 준 여비를 들고 다시 길을 나섰다.

“그래, 이참에 세상 구경이나 두루 하자.”

창수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떠돌아다녔다. 남원을 지날 때 김형진을 찾아갔다. 그의 동생이 창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형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꼭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창수는 김형진의 동생 집에서 며칠 쉬었다. 그리고 전라도를 두루 돌아 다시 충청도로 왔다. 계룡산을 거쳐 마곡사에 들렀더니, 머리가 하얀 늙은 스님이 창수를 맞아 주었다.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지 않겠소?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 될 수도 있을 것이요.”

절 뒤편 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곳에서 며칠 지내고 보니, 마음이 티끌 하나 없이 맑아지는 것 같았다.

“이곳에서 중이 되어 숨어 지낼까?”

창수는 마침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 머리를 깎던 날, 결심한 일이었지만 창수는 눈물을 툭툭 흘렸다. 창수는 낮에는 장작을 패고 밤에는 열심히 불경을 외웠다.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어머니, 아버지는 잘 지내고 계실까?’

창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궁금했다. 창수는 금강산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 마곡사를 떠났다.

드디어 해주 땅에 닿았다. 오는 길에 만난 스님에게 텃골에 가서 부모님의 안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스님을 따라 부모님이 창수를 찾아왔다. 세 식구는 서로 부둥켜안았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창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네가 탈옥한 후에 우리를 잡아 가두더구나. 나는 사흘 만에 풀려났는데, 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고생했다.”

창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밤낮으로 저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 후 창수는 부모님과 평양 영천암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승복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2부 | 교육자의 길에서

2. 김구가 되어



창수가 텃골로 돌아오자, 친척들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쳐다봤다.

“창수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지는 않겠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그럴라고.”

작은아버지는 새벽마다 찾아와서 창수를 깨웠다.

“이제 마음잡고 고향에서 농사를 지어라.”

하지만 창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밭이나 갈면서 지낼 수는 없어.’

창수는 며칠 농사일을 하는 척하다가 텃골을 떠났다. 이름을 김두래로 바꾸고 강화로 김주경을 찾아갔다.

그런데 김주경이 집을 나간 뒤 소식이 없다고 했다. 창수는 김주경의 동생 집에서 서당 선생을 하면서 김주경을 기다리기로 했다.

얼마 후 어떤 사람이 강화로 창수의 소식을 물으러 왔다. 유완무가 보냈다고 했다. 유완무는 창수를 탈옥시키기 위해 결사대까지 꾸렸던 사람이었다.

‘나를 위해 그렇게 애를 썼다니. 어떤 사람일까.’

창수는 유완무란 사람을 꼭 만나고 싶었다. 창수는 서당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배움을 받으며 강화를 떠났다.

창수는 서울로 유완무를 찾아갔다. 유완무가 까무잡잡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맞아 주었다.

“뵈고 싶었소.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고맙습니다. 세상일은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지곤 하지요. 저 역시 소문과 달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붙잡고 올라가면 용의 머리를 보게 되겠지요.”

창수와 유완무는 서로 마주 보며 웃었다.

며칠 뒤 유완무는 창수에게 편지 한 장을 써 주면서 충청도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라고 했다. 거기서 지냈더니, 다시 전라도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라고 했다. 그곳에서 며칠 묵었더니, 이번에는 경상도에 사는 친구에게 가라고 했다.

창수가 경상도에 머물고 있을 때 유완무가 찾아왔다.

“이리저리 가라고 해서 이상했을 것ियो. 우린 새 동지를 만나면 이 집 저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의 사람됨을 살핍니다. 그래서 그에게 알맞은 일을 찾아주지요. 창수 씨는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해야겠소. 우리가 도와주겠소.”

“고맙습니다.”

“참, 김창수란 이름은 알려져 불편할 테니 바꾸는 게 좋겠소. 거북 구(龜) 자를 써서, 김구는 어떻소?”

창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구라, 좋습니다.”

하지만 유완무와 세운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2부 | 교육자의 길에서

3. 아버지의 죽음



어느 날 김구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김구에게 ‘황천’이라는 글씨를 써보라고 했다. 잠에서 깬 김구는 마음이 뒤숭숭했다. ‘황천’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가서 사는 곳을 뜻하는 말이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김구는 얼른 고향으로 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고능선의 집에 들렀다.

“치하포 얘기는 들었네. 그래, 이제부터 무엇을 할 생각인가?”

김구가 눈빛을 빚내며 말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못된 관리들에게 빼앗기고 살면서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서양의 교육 제도는 우리나라보다 낫습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고능선이 김구를 꾸짖었다.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라 하여 왜놈에게서도 배우고 서양 사람에게서도 배운다는 것이냐? 그것은 의리에 어긋나는 것이네.”

이제 스승과 제자는 생각이 달랐다. 김구는 스승과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구는 고능선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텃골로 갔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달려 나왔다.

“아버지가 아까 ‘왔으면 들어오지 않고 왜 뜰에 서 있느냐’고

하시더라. 헛소리인 줄만 알았는데, 네가 정말 왔구나.”

김구는 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누워 있던 아버지가 김구를 보고 힘겹게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의 병은 이미 깊었다. 산골이라 의사를 부를 수도 없어서 정성껏 약을 달여 드렸다. 김구는 옛날에 할머니가 아팠을 때 아버지가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 먹이던 일이 생각났다. 김구는 눈을 질끈 감고 허벅지 살을 베었다. 양이 적은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다시 살을 베었다. 그런데 너무 아파서 손톱만큼도 떼어낼 수가 없었다.

‘허벅지를 베어내는 것은 진짜 효자나 하는 것이구나.’

얼마 뒤 아버지는 김구의 무릎을 베고 숨을 거두었다.



2부 | 교육자의 길에서

4. 교육자로서의 꿈과 결혼

그즈음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황해도에서 교육 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다.

“사람들이 깨어나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

김구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교육자로서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구는 어머니를 모시고 장련으로 이사했다. 진사 오인형이 김구를 도와주었다.

“내 집에 와서 지내시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교육에 힘써 주시오.”

김구는 오 진사의 사랑에 광진학교를 열었다. 그 후 장련읍에 있는 봉양학교로 옮겨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김구가 서른이 가까워질 무렵 다시 결혼 얘기가 나왔다. 신붓감은 18세 된 최준례였다. 최준례는 어머니가 정해준 신랑감이 있었으나 그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혼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저와 뜻이 맞는 사람을 제가 찾겠어요.”

그 얘기를 들은 김구는 최준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그래서 최준례가 다니는 교회로 찾아가서 최준례를 만났다.

‘생각대로 당찬 사람이군.’

최준례도 김구가 믿음직스러웠다. 그런데 딸이 김구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최준례의 어머니가 반대했다. 하지만 최준례의 마음은 굳건했다. 김구는 최준례와 결혼을 약속하고 집으로 데리

고 왔다. 그리고 서울로 보내 경신 여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했다. 김구와 최준례는 1906년에 결혼했다.

한편 1905년(을사년) 11월, 나라에 큰일이 벌어졌다. 일본이 군대로 왕궁을 포위한 뒤 친일파를 앞세워 강제로 조약(을사늑약)을 맺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조약이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나랏일을 할 때마다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온 나라가 술렁거렸다.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를 몰아내자!”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다. 김구도 서둘러 서울로 향했다. 상동교회에서 전국 교회 지도자 모임이 열렸다. 김구는 이동녕, 이준 등과 함께 ‘을사늑약을 철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기로 했다. 상소문을 지은 뒤, 김구는 사람들과 함께 덕수궁의 대한문 앞으로 몰려갔다.

“을사늑약을 철회하라!”

“일본 놈은 물러가라!”

일본 순사가 대표 다섯 명을 잡아갔다. 다른 참석자들이 다시 종로에 모여 연설을 하려고 할 때였다. 일본 순사들이 몰려왔다.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 마침 어느 가게 앞에 기와 조각이 쌓여 있었다.

“이 기와를 던집시다!”

사람들이 기와 조각을 던지자 순사들이 충을 쏘아댔다. 많

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흩어졌다. 수십 명이 다치고 잡혀갔다.

김구는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사라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해. 그들 마음속에 애국심을 일깨워 줘야 해!’

김구는 고향에서 묵묵히 가르치는 일에 열중했다. 서명의숙에 있을 때 첫딸이 태어났다. 얼마 후 김구는 안악에 있는 양산학교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김구가 양산학교에 있을 때였다. 김구는 틈틈이 아이들의 머리를 빗겨 주곤 했다. 긴 머리를 잘 감지 않아서 이가 많았다. 어떤 날은 수업 시간보다 머리 빗기는 시간이 더 많았다. 김구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 아이들의 머리를 깎기로 했다.

두환이가 자기도 깎아 달라고 졸랐다.

“상투 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초립 모자도 무겁고요. 하지만 머리를 자른다고 하면 아버지가 학교를 못 가게 할 거예요.”

김구는 망설이다가 두환이의 머리를 깎았다. 그날 김구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두환이의 뒤를 따라갔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짧은 머리를 한 아들을 맞은 두환이 아버지가 놀라서 눈물까지 흘렸다. 울타리 밖에서 지켜보던 김구가 얼른 나섰다.

“허락 없이 깎아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죽거든 꺾으시지!”

“두환이는 총명한 아이입니다. 아버님이 두환이를 사랑하듯이 저도 두환이를 아깁니다. 상투를 틀고 초립을 씌우는 것은 두환이의 건강에 안 좋습니다.”

두환이의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즈음 김구의 첫째딸이 세상을 떠났다. 김구는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더욱 교육 운동에 힘을 쏟았다. 사범 강습회를 열고 다른 교육자들과 함께 해서교육총회를 만들었다. 해서교육총회는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만든 단체였다. 사람들은 김구의 애국심과 교육 운동에 대한 열정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구에게 학무총감을 맡아 달라고 했다.



해서교육총회 학무총감시절 광진학교 교사와 학생들(1906),
맨 뒷줄 오른쪽 끝이 김구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교육에 관한 연설을 해주십시오.”

그 일은 해서교육총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김구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환등회를 열었다.⁴⁾ 환등기로 동서양의 영웅들 모습과 고종의 사진을 보여주고, 애국심을 일깨워 주었다. 김구의 환등회는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로 늘 북적였다.

4) ▶ [환등회 영상으로 이동하기](#)



2부 | 교육자의 길에서

5. 다시 감옥으로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탕! 탕탕!”

기차에서 내리던 이토 히로부미가 총에 맞고 쓰러졌다. 곧이어 누군가 목이 터져라 외쳐댔다.

“대한 독립 만세!”

안중근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김구는 환등회를 하던 중에 경찰서로 잡혀 왔다. 다음날 김구는 신문 기사를 보고 자기가 잡혀 온 이유를 알았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은치안에게 피살되었다.’

은치안은 ‘안응칠’을 러시아식으로 쓴 것이었다. 응칠은 바로 안중근의 어릴 적 이름이었다.

“안중근이 큰일을 했구나.”

김구는 해주로 옮겨져서 곧바로 감옥에 갇혔다. 이튿날부터 심문이 시작되었다.

“안중근을 아시오?”

“예전에 만난 적은 있지만 하얼빈 일은 모르는 일ियो.”

일본 검사는 이미 김구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그동안 김구가 했던 일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런데 탈옥수 김창수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 김구는 조사받고 한 달 만에 풀려났다.

1910년(경술년) 우리나라는 우리의 국권을 빼앗겼다.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나라가 망한 것이다.

김구는 한달음에 서울로 달려갔다. ‘신민회’의 비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신민회는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 만든 비밀 독립운동 조직이었다.⁵⁾ 이 회의에서 몇 가지가 결정되었다.

‘비밀리에 서울에 우리 정부를 세운다. 만주에 군인학교를 세워 군인들을 훈련 시켜 광복 전쟁을 일으킨다. 이 계획을 위해 필요한 돈을 모은다.’

김구는 황해도 책임자가 되었다. 안악으로 돌아온 김구는 신민회의 계획을 알리고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안중근의 사촌 동생 안명근이 찾아왔다.

“부자들한테서 독립 자금을 걷으려고 하는데 내놓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돈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황해도 지역의 전화선을 끊고 왜놈들을 죽일 작정입니다.”

김구는 안명근을 말했다.

“중국 뤼순 감옥에서 안중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더 멀리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청년들을 만주로 데려가서 군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안명근은 못내 아쉬워하며 돌아갔다.

며칠 뒤 안명근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독립 자금을 모으던 안명근을 누가 일러바친 것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일본 총독인 데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했다고 사건을 거짓으로 꾸몄다. 이 사건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잡혀 들어갔다.

2월 어느 날 양산학교에도 순사가 들이닥쳤다. 김구를 비롯한 선생님들이 모두 잡혀갔다.

순사가 김구에게 물었다.

“여기 왜 잡혀 왔는지 아느냐?”

“내가 어찌 알겠소.”

그러자 순사가 김구의 손발을 뽕뽕 묶어서 천장에 매달았다. 그리고 매질하기 시작했다. 김구는 고통을 참다못해 기절했다.

순사가 김구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겨우 정신을 차린 김구에게 다시 물었다.

“안명근과는 무슨 사이냐?”

“아는 사이지만 같이 일한 적은 없소.”

순사는 김구를 다시 매달고 매질을 했다. 김구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이런 고문이 매일 계속되었다. 잡혀 온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밤낮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김구는 자기를 고문하는 일본인을 보면서 생각했다.

‘자기 일을 참 열심히도 하는구나. 나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저렇듯 밤새워 일해본 적이 있었나?’

어느 날 다시 고문실로 끌려간 김구는 깜짝 놀랐다. 인천 감리서에 있을 때 김구에게 혼쭐이 났던 와타나베가 와 있었다.

와타나베가 김구를 흘끗 보더니 말했다.

“내 가슴에는 X 광선이 있지. 네 비밀을 훤히 다 알아낼 수 있어. 그러니 조금이라도 숨기는 게 있으면 죽을 줄 알아라.”

김구는 와타나베가 김창수를 기억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나는 숨어 지낸 적이 없소. 비밀이라곤 없소.”

그리고 나서 와타나베의 표정을 살폈다. 와타나베는 자기 앞에 있는 김구가 김창수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김구는 속으로 웃었다.

‘네 X 광선이 고장이 났나 보구나.’

김구는 두렵기만 했던 일본이 작게 느껴졌다. 새로운 힘이 났다.

‘나라는 망했어도 백성은 망한 게 아니구나. 내가 김창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아무도 일러바치지 않았어.’

김구는 그들의 마음이 곧 애국심이라고 생각했다.

김구는 일곱 번의 심문 중에 여섯 번은 정신을 잃었다. 유치장

으로 끌려 들어올 때는 일부러 큰소리로 외쳤다.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정신은 절대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창수는 그 외침을 듣고 잡혀 온 동지들이 힘내기를 바랐다.

일본의 고문은 잔인했다. 달군 쇠막대기로 온몸을 지지기도 했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콧구멍에 물을 붓기도 했다. 그리고 목숨만 겨우 붙어 있을 정도로 굶기기까지 했다. 이렇게 지독한 고문을 해서 가짜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김구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날마다 찾아와 밥을 들여보내 주었다. 김구는 밥을 먹을 때마다 목이 메었다.

‘이 밥 속에 어머니의 눈물을 섞여 있겠구나.’

안명근 사건으로 결국 김구는 15년 형을 받았다. 며칠 뒤 김구는 서대문 감옥으로 옮겨졌다.

‘5년이면 세상에 나갈 희망이 있겠지만, 15년은 너무 긴 시간이야.’

김구는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까웠다.

‘비록 몸은 갇혔지만 그동안이라도 당당하게 지내자.’

마음을 바꾸자 다시 힘이 솟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면회를 왔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다 이리된 것 아니냐. 나는 네가 벼슬

을 한 것보다 더 기쁘다. 집 걱정은 말고 네 몸이나 잘 지켜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씩씩하고 힘이 넘쳤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런데도 저렇듯 당당하시다니.’

김구는 어머니가 존경스러웠다.

2부 | 교육자의 길에서

6. 백범이 되어

1912년 7월, 일본 왕이 죽자 사면령이 내려졌다. 사면령은 죄를 용서하고 벌을 안 받도록 해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김구는 15년 중에서 8년이 줄어서 7년이 남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 해 일본 왕의 아내가 죽자 또 사면령이 내려졌다. 김구는 7년에서 5년이 되었다. 이미 감옥에서 3년을 보냈으니, 2년만 더 있으면 풀려나게 된 것이다.

김구는 마음을 새롭게 다졌다.

‘세상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할까?’

김구는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한자를 거북 구(龜) 자에서 아홉 구(九) 자로 고쳤다. 일본이 관리하는 호적에 김구(金龜)로 올라가 있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김구(金九)로 바꾼 것이다.

‘호는 백범(白凡)으로 하자.’⁶⁾

백범의 ‘백’은 신분이 낮은 사람을 뜻하는 ‘백정’에서 가져오고, ‘범’은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범부’에서 가져왔다.

‘독립은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평범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애국심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백범이다!’

김구는 감옥의 뜰을 쓸거나 유리창을 닦으면서 기도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독립 정부를 세우겠지요. 그때 그 정부의 집 뜰을 쓸고 창을 닦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김구는 인천 감옥으로 보내졌다. 김창수란 이름으로 탈옥을 한 뒤 17년이 지나서 다시 인천 감옥으로 돌아온 것이다.

김구는 감옥에 들어앉아 주위를 살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옛날 김창수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런데 누가 아는 체를 했다.

“혹시 김창수 아니시오?”

그때 같이 옥살이했던 사람이었다. 김구는 그 사람이 자기가 김창수라는 것을 고자질할까 봐 걱정되었다. 그래서 자기 밥도 갖다주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가 감옥에서 나가는 날 김구는 자기가 풀려난 것처럼 속이 시원했다.

인천 감옥의 죄수들은 아침저녁으로 바닷가에 나가서 항구 만드는 일을 했다. 김구도 쇠사슬에 묶인 채 흙지게를 지고 까마득하게 높은 사다리를 오르내렸다.



인천 감옥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인천항 축항공사장

어깨와 발이 붓고 등에 부스럼이 났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

김구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해.’

김구는 신음 소리를 삼키면서 사다리를 올랐다.

1915년 여름, 김구는 드디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완전히 풀려난 것이 아니었다. 어디를 가려면 헌병대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고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김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김구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화경이가 아빠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둘째 딸 화경이가 얼마 전에 죽었다고 했다. 김구는 읍내 산기슭 공동묘지에 있는 화경의 무덤을 찾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김구는 오래도록 작은 무덤을 쓰다듬었다.

2부 | 교육자의 길에서

7. 농촌 운동

김구는 아내가 근무하는 안신 학교에서 아내의 일을 도와주었다. 그 사이 셋째 딸 은경이 태어났다.

김구는 틈틈이 김용진의 동산평 농장에 가서 농사일을 감독했다. 김구는 어떤 일도 앞장서서 할 수가 없었다. 일본 순사가 김구가 무엇을 하는지 늘 감시했다.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어느 날 김구는 김용진에게 동산평 농장의 농사 감독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김용진이 가웃거리면서 물었다.

“편한 곳도 있는데 왜 하필 동산평입니까?”

동산평 농장은 말썽이 많은 곳이었다. 오랫동안 감독과 몇몇 소작인이 싸고 수확물을 빼돌리곤 했다. 농사 감독 노형근은 소작인들에게 도박을 부추겨서 그들의 곡식을 빼앗았다.

“몇 년간 그곳을 살펴보았는데 내가 가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소.”

그러자 김용진이 김구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안 그래도 그 일을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김구는 아예 동산평으로 이사를 했다. 김구는 어머니에게 단단히 일렀다.

“어머니, 혹시 소작인이 뭘 가져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김구는 소작인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소작인에게 소작권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

내면 논 두 마지기를 더 주겠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부치는 땅의 일부를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김구는 동산평에 학교를 세우고 몇 과목을 직접 가르쳤다. 소작인들은 땅을 얻으려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했다.

김구가 하는 일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전 농사 감독이었던 노형근 형제가 앞장서서 트집을 잡았다.

어느 날 밤 노형근이 김구를 찾아왔다.

“김구야, 좀 보자!”

“이 밤중에 무슨 일이오?”

김구가 나가자 노형근이 달려들었다. 김구의 왼팔을 힘껏 물더니 김구를 끌고 저수지 근처로 데려갔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와 두 사람을 에워쌌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예의 없는 사람에게는 힘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어!’

김구는 노형근의 오른팔을 물고 힘껏 그를 뿌리쳤다. 그러자 그가 펄쩍 뛰면서 뒤로 물러났다. 김구가 노형근의 패거리를 향해 소리쳤다.

“숨어 있지 말고 나와서 한번 해 보거라!”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결국 며칠 뒤 노형근 형제가 와서 무릎을 꿇었다.

김구는 부지런히 소작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격려했다.



“성실하게 일하면 상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을 피우거나 도박을 하면 경작권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 소작인들은 자기 집에 더 많은 곡식을 가져가게 되었다. 이제 도박하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 김구를 집안 어른처럼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런데 김구에게 또 불행이 닥쳐왔다. 셋째 딸 은경이마저 떠난 것이다. 그리고 다음 해 1918년 11월에 맏아들 인이가 태어났다.

3부 |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1. 임시정부를 찾아서

1919년 3월 1일이었다. 서울 파고다 공원이 사람들로 꽉 찼다. 사람들이 태극기를 꺼내 들고 목청껏 외쳤다.

“대한 독립 만세!”

깜짝 놀란 일제는 총과 칼로 사람들을 막아섰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잡혀 들어갔다. 그 후 나라 곳곳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구의 고향에서도 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들뜬 얼굴로 김구를 찾아왔다.

“선생님, 우리도 나가서 만세를 불리요.”

김구도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참았다. 김구는 상하이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싶었다.

“나는 다른 계획이 있네. 자네들은 어서 나가서 만세를 부르게 나.”

김구는 청년들을 격려해 주었다.

며칠 후 김구는 소작인들에게 일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이웃 마을에 다녀온다고 하고 농장을 빠져나왔다.

김구는 사리원으로 가서 경의선 열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신의주에 도착했을 때 검문에 걸렸다.

김구가 둘러댔다.

“간도로 목재를 사러 가는 중이요.”

김구는 인력거를 타고 중국 단둥으로 갔다. 그곳에서 좁쌀 장수로 꾸미고 머물다가 영국 상인의 배를 탔다. 드디어 상하이에

도착했다. 미리 와 있던 이동녕과 다시 만났다. 이때 김구의 나이 43세였다.

당시 상하이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3·1 운동 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도 상하이로 모여 들었다.⁷⁾

독립운동가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아서 임시 의정원을 열고, 임시정부를 세웠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꿨다. 이제 더 이상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라는 뜻이었다.

그즈음 나라 안에서도 비밀리에 ‘한성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연해주에도 ‘대한국민회의’라는 임시정부가 있었다. 그해 9월, 세 개의 임시정부가 합쳐졌다. 이름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정하고, 상하이에 자리 잡기로 했다. 상하이가 세계 여러 나라와 외교 활동을 벌이기에 편리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김구는 안창호를 찾아갔다.

“안 총장, 나를 임시정부의 문지기로 써 주시오.”

“아니, 문지기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나는 감옥에 있을 때 결심했소. 우리나라 정부가 생기면 나는 뜰을 쓸고 창을 닦을 거라고 말ियो.”

그런데 다음날 안창호가 김구에게 경무국장 일을 맡아 달라고 했다. 김구는 거절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은 못 됩니다.”

“몇 년씩이나 감옥 생활을 했으니 왜놈의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시정부 청년들이 나이가 많은 분이 문지기로 있으면 불편하다고들 합니다.”

마지못해 김구는 경무국장을 맡았다.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된 것이다. 경무국장은 일본 첩자들을 찾아내고, 독립운동가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다. 김구는 5년 동안 경무국장을 하면서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형을 집행하는 일까지 맡아서 했다. 소원대로 임시정부를 지키는 든든한 문지기가 된 것이다.



그 무렵 임시정부는 프랑스 조계 안에 있었다. 조계는 중국에 사는 외국인이 지내는 지역이었다. 조계 안에서는 그 나라의 법에 따르도록 허락했다. 프랑스 조계 당국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져 주었다. 일본 영사관이 독립운동가들의 체포를 요구하면 미리 알려 주기도 했다.

일본은 독립운동가들을 잡기 위해 프랑스 조계로 몰래 사람을 보내기도 했다.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경무국장인 김구의 일이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김구를 찾아왔다. 청년은 품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더니 눈물을 흘렸다.

“일본 영사관에서 저를 붙잡아 가더니, 김구를 죽이면 큰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을 보자 부끄러워졌습니다.”

“고맙네.”

김구가 덥석 청년의 손을 잡았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6회 기념(1919.9.17)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장 시절의 김구

7) ▶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하이시기 관련 전시로 이동하기](#)

3부 |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2. 국무령이 되어

1920년에 김구의 아내, 최준례가 맏아들 인이를 데리고 상하이로 왔다. 2년 뒤에는 어머니도 왔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살게 되었다. 김구는 따듯한 가족의 품에서 지내면서 임시정부 일에 힘을 쏟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최준례는 발을 헛디뎠다. 계단에서 굴렀다. 둘째 신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병이 깊어진 최준례는 일본 조계에 있던 병원에 입원했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다.

“김구 선생님을 오시라고 할까요?”

최준례가 고개를 저었다. 일본 경찰에 쫓기는 남편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최준례는 쓸쓸하게 숨을 거두었다.



김구, 김인, 최준례 가족사진(1921)

김구는 아내의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려고 했다. 그러자 임시정부 동지들이 나섰다.

“독립운동을 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나랏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 장례를 치르고 묘비까지 세워 주었다. 묘비는 한글학자 김두봉이 한글로 썼다. 그때 신이는 막 걸음마를 익히고 있었다. 엄마를 잃은 신이는 할머니의 빈 젖을 물고 잠이 들었다.

그 후 1925년 무렵 어머니가 김구를 불러 앉혔다.

“나하고 신이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네. 그러면 더 홀가분하게 나랏일을 할 수 있을 걸세.”

어머니는 신이를 데리고 조국으로 돌아갔다.



아내 최준례의 묘비를 세우고(1924), 왼쪽부터 김신, 김구, 광낙원, 김인

『죽어도故國江山』

기박한생애에 남다른 뜻 가진

上海客窓의 金九氏母親

◆……상해임시정부 김구(金九)씨의 안해가 불행히 병마에 걸
九(씨)의 모친 郭樂園(郭樂園) 리어 이역강산에서 항찬의 길을
(*)녀사는 오늘날까지 아들과 먼지 떠나가게 되매 郭氏부인은
한해 郭氏를 養育한 생활을 하여 오 라관에서 현숙한 며느리를 일
며 지금으로부터 약 사년 전에 그 허버리고 눈물마를 날이 업시 오
의 고향인 항해도신친군(信川 郡)을 떠나며 느리손자들을 다 되손자와 두살된 손자를 다리고
리고 아들 김구씨의 잇는 상해로 눈물로 세월을 지내다가
건너와서 인청봉불이 모다 생소 ◆……은 일에는 다시 고국생
한 이역라관에서 하로가름분투 각이 간절하다고 그 아들의 집을
의 생활을 하여 오든 중 지금으로 떠나고 항으로도 다 가고 귀준비 중
약이 년 전에는 가치고 고생사리를 이라는 데 상해에 잇는 여러사람들
하여 오든 그의 자부(子婦)인 김이 고국에는 갖가운 친척도 한사



郭樂園과 김신의 귀국 보도(동아일보, 1925.11.6)

한편 임시정부는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독립 자금이 모자랐다. 일본의 탄압이 심해지자 국내에서 도와주던 사람들도 더 이상 돈을 보낼 수가 없었다. 상하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났다. 일본에 잡혀간 사람도 있었고 행복한 사람도 있었다. 임시정부는 이름만 겨우 유지한 채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동녕이 김구를 찾아왔다.

“백범이 나서 주시지요.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맡아 주세요.”

“그건 안 될 말입니다.”

김구가 손을 내저었다.

“저는 해주 시골의 상민의 아들입니다. 그런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다니요.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훌륭한 사람도 인재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누가 저 같은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지금 이 어느 때인데 상민이니 양반이니 합니까? 백범만 나선다면 따를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1926년에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이 되었다. 김구는 국무령제를 국무위원제로 고쳐서 국무위원이 돌아가면서 주석을 맡아보도록 했다.

그 무렵 임시정부는 집세 30원도 못 낼 만큼 가난했다. 인이마저 고향으로 보내고 혼자 살던 김구는 임시정부 청사에서 잠을 잤다. 형곶을 여러 겹 덧대 만든 형곶신을 신고 다닐 만큼 형편이 어려웠다. 김구는 다 헤진 신을 신고 동포 집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었다.

김구는 임시정부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설치곤 했다.

‘임시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나가려면 독립 자금이 필요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

김구는 궁리 끝에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미국, 하와이, 멕시코에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애국심만은 뜨거웠다.

‘그래! 이곳 사정을 알리고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해 보자.’

엄항섭과 안공근이 그곳 동포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내서 편지를 써 보냈다. 편지를 보내고 몇 달이 지났다. 드디어 답장이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난한 살림에도 한푼 두푼 돈을 모아서

보내주었다.

“동포 여러분의 애국심에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는 정성껏 답장을 보냈다. 그러던 중 하와이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다.

“당신이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어서 든든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돈을 보내겠습니다.”

김구는 얼른 답장을 보냈다.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연락을 드릴 테니 돈을 보내주십시오.”

김구는 희망에 부풀었다. 임시정부 청사에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곤 했다.



3부 |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3. 한인애국단과 이봉창

1931년 7월, 만보산 사건이 일어났다. 중국 길림성 근처 만보산으로 옮겨와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과 중국인 사이에 싸움이 났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 양쪽 민족이 서로 싸우도록 부추겼다. 만보산 사건으로 중국인들은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싫어하게 되었다.

이 틈을 노려 일본은 그해 9월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까지 쳐들어왔다.

김구는 임시정부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독립운동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구는 청년들을 모아 한인애국단을 꾸렸다.⁸⁾ 이 비밀 단체는 일본의 높은 관리를 암살하거나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았다.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이끌고 결과만 임시정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김구를 찾아왔다.

“저는 이봉창이라고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려고 상하이로 왔습니다.”

“장하오. 그런데 임시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할 돈이 없소. 생활비를 해결할 방법이 있소?”

“일본어를 할 줄 아니까 철공소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

김구는 일본인처럼 행동하는 그가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며칠 두고 살펴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김구는 교민회 사무실에 들렀다가 이봉

창이 하는 말을 우연히 엿들었다.

“독립운동을 한다면 왜 일본 왕을 죽이지 못하는 겁니까?”

“낮은 계급의 관리를 죽이는 일도 어려운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소?”

“작년 도쿄에 있을 때, 일본 왕이 능으로 행차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내 손에 폭탄이 있었다면 그를 죽였을 겁니다.”

그날 저녁 김구는 이봉창을 찾아갔다. 둘은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구는 이봉창이 믿음직스러웠다.

이봉창이 말했다.

“제 나이가 31살입니다. 그동안 삶의 재미는 충분히 느껴봤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제 남은 삶을 보내고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고맙소.”

김구가 이봉창의 손을 꼭 잡았다.

“비밀리에 해야 할 일이 있소. 1년 안에 준비할 테니, 매달 한 번씩 밤중에만 찾아오시오.”

이봉창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철공소에 다니면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구는 서둘러 하와이 동포에게 독립 자금이 필요하다고 편지를 보냈다. 독립 자금이 도착하자 김구는 옷 속에 돈을 감추고 밥을 얻어먹으러 다녔다. 드디어 폭탄이 준비되었다. 김구는 이봉창에게 폭탄 사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돈을 꺼내주면서

일본 갈 준비를 마치고 다시 만나자고 했다.

이틀 후 김구와 이봉창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다. 이봉창이 김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번에 선생님이 낡은 옷 속에서 큰돈을 꺼내주실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 사정을 알고 있는데, 저를 믿고 그렇게 큰돈을 내주시다니요. 누가 나를 이리 진심으로 믿어 준 것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김구와 이봉창은 안공근의 집으로 가서 한민애국단 선서식을 하고 사진을 찍었다. 김구가 슬픈 얼굴로 서 있자 이봉창이 말했다.

“선생님, 저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봉창이 미소를 짓는 순간 찰각 사진을 찍었다.



이봉창은 우편을 실어 나르는 배를 타고 일본으로 향했다. 그리고 얼마 후 일본 도쿄에서 김구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1월 8일 물품을 팔아치우겠습니다.’

이것은 그날 일본 왕을 죽이겠다는 암호였다.

드디어 1932년 1월 8일이 되었다. 도쿄에서 군대의 준비 상황을 살피는 의식인 관병식이 열리고 있었다. 일본 왕 히로히토가 탄 마차를 향해 폭탄이 날아들었다.

“팡! 팡!”

말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나뒹굴었다. 이봉창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봉창은 감옥에 갇혀서도 한민애국단과 김구에 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해 10월 10일 일본 이치가야 형무소에서 죽었다. 이봉창의 나이 32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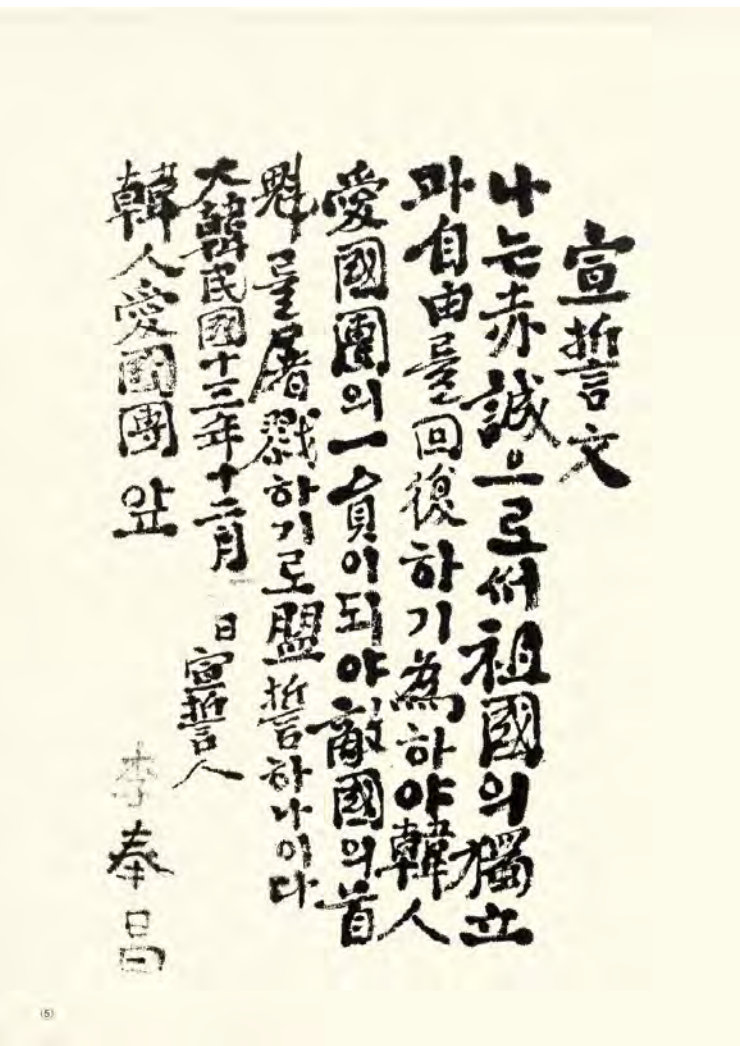
김구도 곧 도쿄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일본 왕을 죽이지 못했다고 했다.

“이봉창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다니...”

김구는 마음이 아팠다. 그러자 동지들이 말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아주 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봉창 의거는 한민애국단의 첫 활동이었다. 이 일이 알려지자 해외 동포들이 격려 편지와 돈을 보내왔다. 임시정부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봉창 선서문(1931.12.13)



이봉창

8) ▶ [한인애국단 관련 전시로 이동하기](#)

3부 |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4. 윤봉길과 홍커우 의거

이봉창 의거 이후 상하이에 있던 청년들이 김구를 찾아왔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어떤 일이든 맡겨 달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채소 장사를 한다는 윤봉길이란 청년이
김구를 찾아왔다.

“저는 큰 뜻을 품고 상하이로 왔습니다. 이봉창 선생님이 했던
큰일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김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를 살폈다.

‘음, 의로운 사람이군.’

김구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있소. 마땅한 사람을 찾는 중이었소.”

김구는 홍콩 공원에서 열리는 일본 왕 생일인 천장절 경축
식에서 폭탄을 터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계획을 말해 주
자, 윤봉길의 눈빛이 빛났다.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마침 상하이 일본 영사관에서 신문에 공고를 냈다.

‘4월 29일 홍콩 공원에서 천장절 축하 행사를 한다. 참석을
하는 사람은 물병과 도시락, 일본 국기를 가지고 입장하라.’

김구는 중국군 무기 공장 책임자로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

“물통과 도시락을 보낼 테니 그 안에 폭탄을 넣어 주시오.”

폭탄이 만들어지자, 김구는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려고
폭발 실험을 했다. 그리고 폭탄을 프랑스 조계 안에 있던 동포
집에 몰래 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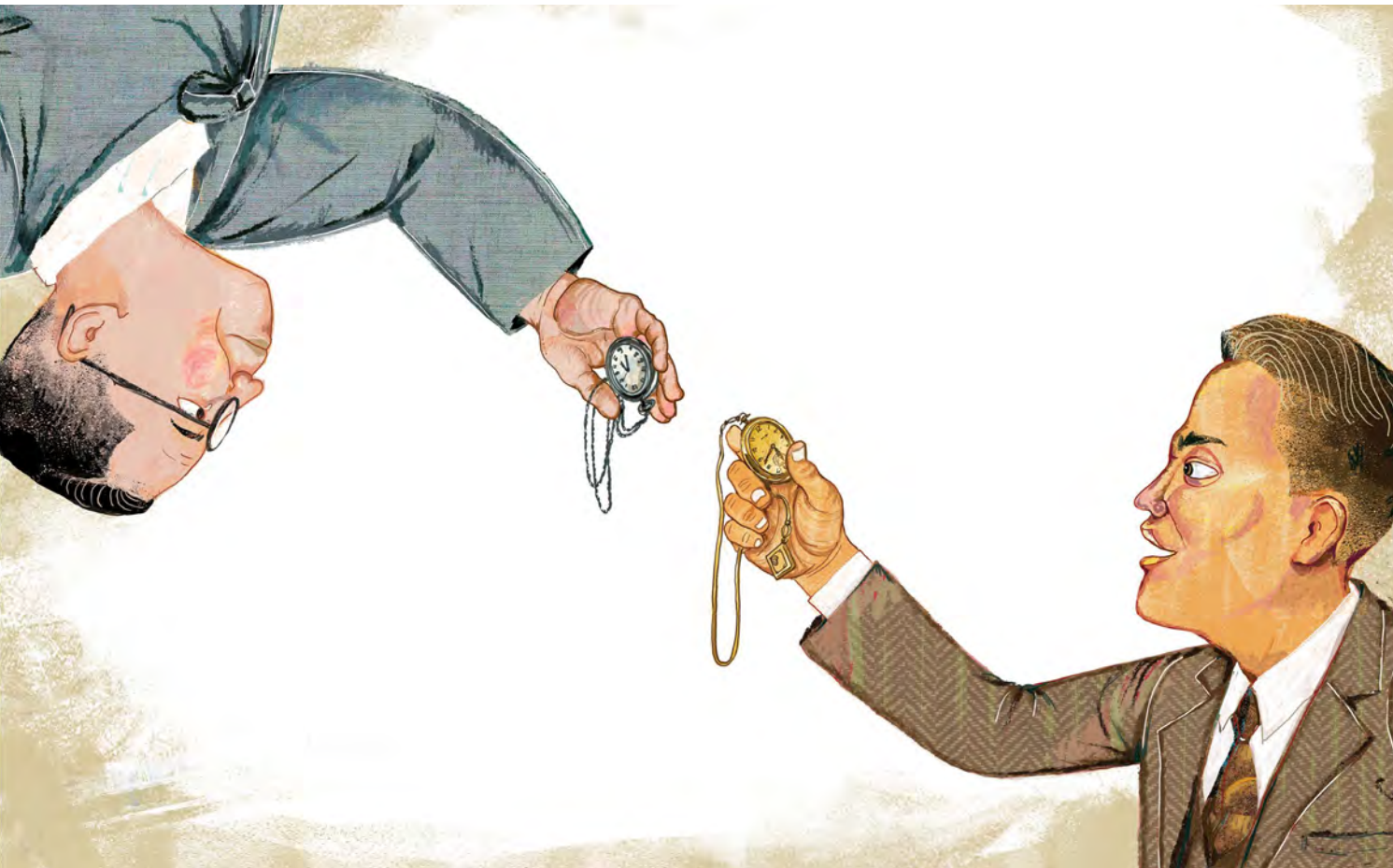
“귀한 약품이요. 특히 불을 조심하시요.”

한편 윤봉길은 양복 차림으로 매일 홍커우 공원으로 갔다. 폭탄을 던질 위치를 살피고, 김구를 찾아가서 함께 계획을 의논했다. 임시정부의 살림을 도와주고 있던 독립운동가 이화림이 부부인 척 홍커우 공원에 같이 입장해 주기로 했다.

마침내 4월 29일 날이 밝았다. 김구는 윤봉길과 밥상 앞에 마주 앉았다. 윤봉길은 마치 밭을 갈러 나갈 농부처럼 태연하게 밥그릇을 비웠다.

괘종시계가 7시를 알렸다. 윤봉길이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제 시계는 6원짜리인데 새것입니다. 저번에 보니 선생님의 시계는 2원짜리더군요. 저는 이제 1시간밖에 쓸 일이 없습니다. 자랑 바꾸시지요.”



김구는 말없이 그의 시계를 받고 자기 시계를 내주었다. 윤봉길은 차를 타고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돈을 김구에게 주었다.

김구가 말했다.

“그냥 넣어두시오.”

김구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젊은이를 보자 목이 메었다.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윤봉길은 차 안에서 김구에게 머리를 숙였다. 차는 윤봉길을 싣고 홍커우 공원으로 달렸다.

김구는 안창호에게 편지를 써서 알렸다.

‘오늘 큰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시경부터는 집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김구는 초조한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렸다.

한편 윤봉길과 이화림은 홍커우 공원에 무사히 입장했다. 이화림은 윤봉길이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로 빠져나왔다. 윤봉길은 미리 봐 두었던 자리로 갔다.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다.

천장절 기념식이 시작되고 일본 국가가 울려 퍼질 때였다. 윤봉길이 단상 앞으로 나가서 폭탄을 힘껏 던졌다.

“쾅! 쾅!”

기념식장에 불꽃이 터지고 뿌연 연기에 뒤덮였다.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봉길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으나 곧 붙잡히고 말았다. 윤봉길은 끌려가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

“대한 독립 만세! 만세!”

오후 1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홍커우 공원에서 중국 사람이 폭탄을 던져서 일본 사람이 많이 죽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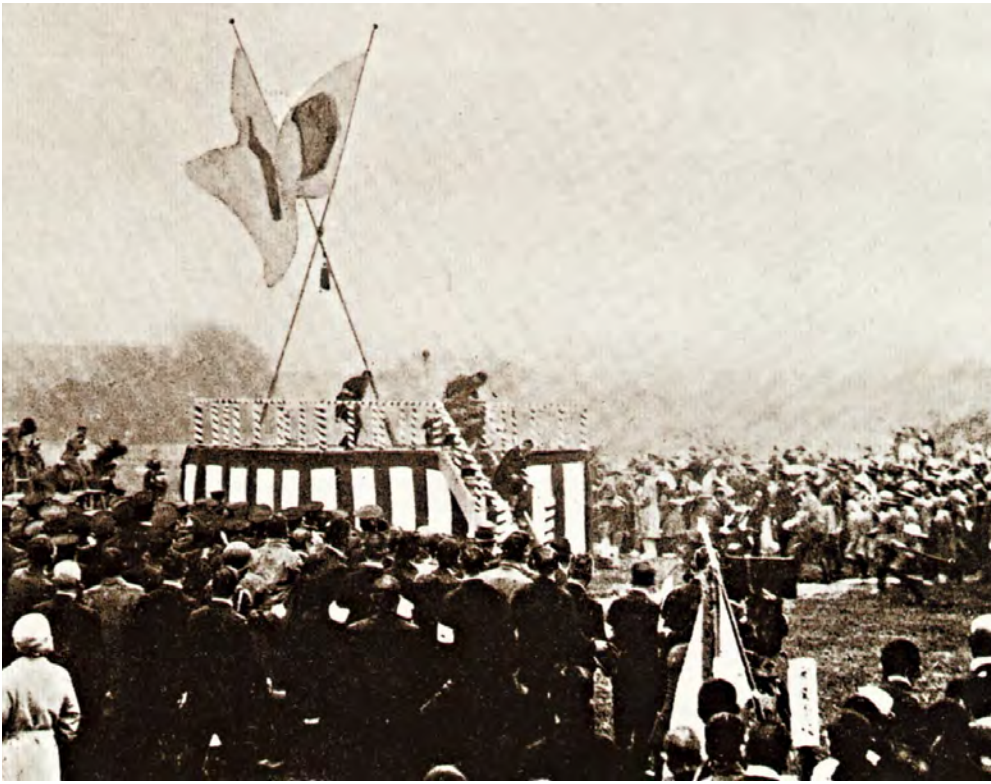
“아냐. 조선 사람이 그런 거래.”

김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운 동지, 해냈구려!”



윤봉길 의거 직전 기념식장(상해 홍구공원, 1932.4.29)



윤봉길 의거 직후 기념식장(상해 홍구공원, 1932.4.29)

오후 신문 호외에 홍콩 사건 기사가 실렸다. 홍콩 공원에서 폭탄이 터져 높은 직위에 있던 일본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했다. 다음날 신문에 윤봉길 이름이 크게 실렸다.

일본 경찰은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녔다. 이 일과 연관된 임시정부 쪽 사람을 찾으려고 프랑스 조계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김구는 동지들과 미국인 피치의 집에 숨었다. 피치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를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김구는 피치의 집에서 전화로 임시정부 사람들과 연락했다.

일본 경찰은 죄 없는 동포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갔다. 안창호

도 잡혀갔다. 그러다 보니 동포들 중에는 김구를 탓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느 날 김구가 동지들에게 말했다.

“이 일로 엉뚱한 사람들이 잡혀가고 있소. 사실대로 모두 알려야겠소.”

며칠 뒤 김구는 엄항섭에게 성명서를 쓰라고 했다. 그리고 피치 부인이 영어로 번역한 성명서를 로이터통신에 보냈다.

‘이 일은 모두 나, 김구가 계획한 것이요. 흥커우의 일로 동포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멈추시오. 우리나라를 되찾기 전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요!’

성명서가 발표되자 김구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 무렵 일본은 중국 땅까지 넘보고 있었다. 그런 일본을 임시정부의 한민애국단이 혼쭐을 낸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예전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도 임시정부를 돕겠다고 나섰다.

宣誓文

小は赤誠堂州祖國の獨立と自由
 を回復하기為하야韓人愛國團의
 一員의外中國を侵略하는敵의將
 校를屠戮하기로盟誓하나다

大韓民國十四年四月二十日宣誓人尹奉吉
 韓人愛國團上

윤봉길 선서문(1932.4.26)



김구와 윤봉길(1932.4.27)

3부 |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5. 쫓기는 김구

윤봉길 의거 뒤에 김구는 더 바빠졌다. 피치 집에서 낮에는 전화로 동포들을 격려했다. 밤에는 잠깐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 동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일본은 김구에게 현상금을 걸었다.

“김구를 잡거나 죽이면 은화 20만 원을 주겠다!”

현상금은 다시 60만 원으로 올랐다. 누구라도 김구를 잡아 오거나 죽이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어느 날 피치 부인이 2층으로 뛰어 올라왔다.

“어서 피하세요. 일본 영사관에서 알아챈 것 같아요.”

피치 댁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자, 일본 영사관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피치 댁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연락을 받은 피치가 한달음에 달려왔다.

“근처에 선생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짹 깔렸어요. 빠져나가기
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누군가 피를 냈다.





“선생님이 뒷자리에 피치 부인과 같이 타십시오.”

김구는 피치 부인과 부부처럼 나란히 차 뒷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피치가 운전을 했다. 그렇게 김구는 프랑스 조계를 벗어났다.

1932년 5월, 김구는 안공근 등과 함께 자싱이란 곳으로 갔다. 자싱은 상하이와 항저우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일제는 김구를 잡기 위해서 이곳을 지나는 모든 기차를 검문했다.

김구는 추푸청이란 중국인이 빌려준 집에 숨었다. 2층에서 지내다가 위험이 닥치면, 바닥에 있는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 배를 탔다. 김구는 자싱에 숨어 지내면서 장진구, 장진이라는 이름을 썼다. 문제는 말이었다. 이곳 말은 상하이 말과도 달랐다. 김구는 광저우 사람인 척하면서 이곳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둘러댔다.

자싱은 호수가 많았는데 인심도 펍 좋았다. 김구는 뱃사공 주 아이바오의 배를 타고 숨어 지내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뱃길을 오르내리면서 중국 농촌을 둘러보았다. 우리 것보다 나은 농기구나 농사법을 발견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왜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않았을까. 국민들의 삶과 행복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어느 날 김구는 배에서 내려 광장으로 나가보았다. 광장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장교 하나가 김구에게 다가왔다.

“댁은 어디서 왔소?”

“광저우에서 왔소.”

그런데 그 군인이 마침 광저우 사람이었다. 그는 김구의 말이 광저우 말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김구는 곧바로 중국 보안대로 끌려갔다. 다행히 추푸청의 아들 추평장이 와서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그 뒤로 김구는 호수에 띄워진 배 위에서 지내면서 잠깐씩 땅을 밟았다.

김구가 숨어 지내는 동안, 박찬익과 안공근은 중국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외교 활동을 했다. 특히 박찬익은 중국 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김구는 그의 도움으로 중국 지도자 장제스를 만날 수 있었다.⁹⁾

김구가 찾아가자 장제스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둘은 글씨를 쓰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김구가 먼저 붓을 들었다.

“주석께 100만 원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년 안에 일본, 한국, 만주 세 곳에서 폭동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장제스가 붓을 들었다.

“좋습니다. 계획을 써서 보내주시오.”

김구는 다음날 간단한 계획을 적어 보냈다. 김구의 계획서를 살펴본 장제스가 비서를 통해 답을 보냈다.

“천황을 죽이면 새 천황이 나올 것이고, 대장을 죽이면 새 대

장이 나올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 군인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구가 말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장소와 자금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김구의 뜻을 전해 들은 장제스는 뤼양 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만들도록 허락해 주었다.

김구는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독립군들과 중국에 흩어져 있던 청년들을 모았다. 그들을 뤼양 군관학교에 입학시켰다. 독립군 장군이었던 지청천과 이범석이 훈련생 100여 명을 가르쳤다.

김구는 뿌듯했다.

“이제 임시정부도 당당한 군대를 가질 수 있겠군.”

그러나 이 한인 특별반은 1기만 졸업시키고 문을 닫았다. 한인 특별반을 알아챈 일본이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 중국 정부도 결국 일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임시정부는 항저우에 있었지만, 임시정부 요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서 활동했다. 김구도 국무령 자리에서 물러나 있었다. 임시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판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참에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 단체를 만듭시다!”

김구가 나섰다.

“어떻게 지켜온 임시정부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구는 임시정부 요인들과 호수에 배를 띄우고 비상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한국국민당을 만들었다.

김구가 난징으로 옮긴 후 많은 청년들이 김구를 찾아왔다. 김구는 청년들을 모아 학생훈련소를 만들었다. 그곳에서 청년들은 중국의 중앙육군 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김구는 임시정부 일을 하는 틈틈이 그곳에 들러 학생들을 가르쳤다.

3부 |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6. 떠도는 임시정부

한편 고향에 내려와 있던 어머니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본 순사가 들이닥쳤다.

“김구는 어디 있소?”

윤봉길 의거 후에 더 심하게 어머니를 괴롭혔다. 그 소식을 들은 김구는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중국으로 오십시오. 이곳 사정이 나아져서 예전처럼 굶는 일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떠나려고 하자 일본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오래 살 것처럼 집을 수리하고 살림살이를 새로 마련했다. 그리고 친척 병문안을 간다고 하고 신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평양에 도착해서 숭실중학교 기숙사에 머물고 있던 인이를 불러냈다. 그리고 두 손자와 상하이를 거쳐 김구가 있는 자싱에 도착했다.

김구는 9년 만에 다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 힘드셨지요. 죄송합니다.”

“자네가 군관학교에서 많은 청년을 거느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네. 나는 지금부터 너라는 말 대신 자네라고 하겠네. 그리고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회초리를 들지 않겠네.”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다. 김구는 동지들과 돈을 모아서 생신상을 차려드리려고 했다. 어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생일상은 무슨. 내가 입맛에 맞는 음식을 사 먹을 테니, 그냥 돈으로 주시게.”

며칠이 지났다. 어머니가 권총 두 자루를 내놓았다.

“얼마 더 보태서 샀네. 이 총으로 싸워서 얼른 독립을 이루게 해주게.”

김구는 어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한편 1937년 7월, 중일 전쟁이 터졌다. 중국을 넘보고 있던 일본이 드디어 전쟁을 일으켰다.

김구는 여러 독립운동 단체의 지도자들을 모았다.

“이 전쟁에서 우리도 중국과 함께 일본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독립운동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1937년 8월, 중국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단체가 모여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일본과 어떻게 싸울지 계획을 세우고, 반일 선전 자료를 만들었다.

그 무렵 중국 정부의 수도는 난징이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난징에 모여 있었고, 임시정부도 난징 근처 전장에 있었다. 그 난징 하늘에 일본 비행기가 자주 나타났다.

어느 날 일본 비행기가 김구가 살던 집을 폭격했다. 천둥 치는 소리가 나면서 천장이 무너졌다. 김구는 미리 집 밖으로 나와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

날이 밝자마자, 김구는 어머니 댁으로 뛰어갔다.

“어머니, 놀라셨지요?”

“놀라기는 무얼. 침대가 들썩들썩했다네. 그래, 우리 사람들은 괜찮은가.”



어머니는 자신보다 동포들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김구는 얼른 동포들을 챙기기 위해 뛰어나갔다. 다행히 동포들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난징이 위험해지자 중국 정부는 충칭으로 옮겨갔다. 임시정부는 창사로 옮기기로 했다.

“창사는 곡식 값이 싸답니다. 그리고 홍콩이 가까워서 해외 동포들과도 연락하기가 편할 겁니다.”

난징에서 창사까지는 배를 타고 가야 했다. 임시정부 대가족은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렇게 난징을 떠난 뒤 일본이 곧바로 난징으로 쳐들어왔다. 일본은 난징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임시정부 대가족이 창사에 도착하자, 김구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마침 김구와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창사의 책임자로 왔다. 그는 임시정부 가족들을 챙겨 주었다. 중국 정부가 준 보조금과 해외 동포들이 보내준 돈도 있었다. 대식구였지만 임시정부 가족들은 창사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김구는 창사에서 김구라는 이름으로 지냈다. 지금껏 이름을 바꾸면서 살았는데,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지낼 수 있었다.

3부 |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7. 가슴에 박힌 총알

이 무렵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크게 사회주의 쪽과 민족주의 쪽으로 나뉘었다. 민족주의 쪽도 다시 몇 갈래로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었다.

김구는 창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을 쏟았다.

“우리는 모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나선 사람들입니다. 뜻이 같으니 뭉쳐야 합니다. 독립운동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1938년 5월, 어느 날이었다. 민족주의 쪽의 지도자들이 남목청에 모였다. 통합을 의논하기 위해서였다.

갑자기 총을 든 사람이 들이닥쳤다.

“땅! 땅!”

총구는 김구를 향했다. 그리고 몇 발이 더 발사되었다. 김구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쓰러졌다. 다친 독립운동가들은 병원으로 실려 갔다. 김구를 살핀 의사가 말했다.

“이 분은 살지 못할 것 같네요.”

김구는 입원하지도 못하고 문간에 버려졌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숨이 붙어 있자 그제야 병실로 옮겨졌다. 한 달 만에 김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어머니에게는 놀랄까 봐 퇴원할 때쯤 이런 사실을 알렸다. 김구가 퇴원해서 찾아가자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자네의 목숨은 하늘이 보호하는 줄 알고 있었네. 하지만 동포의 총에 맞았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일세.”

김구는 그때의 충알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았다.

일본의 폭격이 끊이지 않자 창사에서도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었다. 임시정부는 중국 정부가 있는 충칭으로 옮기기로 했다. 김구는 충칭에 미리 가서 임시정부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 가족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데…”

김구는 걱정스러웠다. 길이 너무 멀고 험난했기 때문이었다.

찜통 같은 한여름이었다. 100여 명의 임시정부 대가족은 좁은 기차간에 실려 광저우로 갔다. 다시 류저우를 거쳐 충칭으로 가야 했다. 배를 타고 온갖 고생 끝에 류저우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일본의 폭격이 있는 날이면 동굴로 숨어 다녀야 했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식구들이 류저우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류저우에서 충칭까지는 너무 멀어. 어떻게 안전하게 데려오지?”

김구는 중국 정부의 문턱이 닳도록 찾아갔다.

“임시정부 가족을 안전하게 데려와야 합니다. 교통편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섯 달 만에 중국 정부로부터 자동차 6대를 빌릴 수 있었다. 임시정부 가족은 굽이굽이 험한 산길을 넘어 겨우 충칭 근처에

도착할 수 있었다.

김구는 충칭 근처 투차오의 땅을 중국 정부로부터 빌렸다. 그곳에 집을 짓고 임시정부의 대가족이 지낼 작은 마을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한인촌이라 불렀다. 임시정부 대가족은 텃밭을 일구고, 아이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쳤다. 임시정부의 대가족은 해방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다.

김구는 미국과 하와이 동포들에게 충칭으로 이사한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답장을 기다리느라 우체국을 드나들었다.

하루는 우체국에 갔더니 인이가 찾아왔다.

“할머니가 아프셔서 모시고 왔어요.”

그 무렵 어머니는 인이와 류저우에 머물고 있었다. 김구는 달려가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풍토병이었던 인후염을 앓고 있었다. 병이 심해서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었다.

“독립이 되면, 그때 나를 고향으로 데려가 주게.”

마지막을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1939년 4월이었다.

김구의 어머니 곽낙원은 독립운동을 하는 아들의 뒷바라지로 한평생을 고달프게 살았다. 손자들을 보살피고 독립운동가들의 밥을 해 먹이느라 손이 마를 날이 없었다. 김구는 상하이 시절에 신이를 등에 업고 중국인들이 버린 채소 이파리를 가져와서 반찬을 해 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어머니가 담가준 우거지김치는 임시정부 동지들과 오래

두고 먹었었지.’

누군가가 곽낙원에게 독립이 되면 무얼 하고 싶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곽낙원은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지’라고 했다.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셨는데….’

김구는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눈물을 삼켰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년 뒤 이동녕도 떠났다. 김구가 스승처럼, 친구처럼 의지하던 사람이었다. 이동녕은 마지막 순간에 김구를 찾았다.

“백범, 내가 죽으면 자네 짐이 더 무거워지겠군.”

김구는 차가워진 이동녕의 손을 한동안 놓지 못했다.



어머니 곽낙원 여사 장례식(중경 화상산, 1939.4), 왼쪽부터 김신, 김인, 김구, 김홍서, 김현구

3부 |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8. 자랑스러운 광복군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옮긴 뒤 김구는 설 틈이 없었다. 그곳에서 동포들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다. 중국 정부 쪽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임시정부가 충칭에 도착하기 몇 개월 전이었다. 김구는 여러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각각의 단체마다 생각이 달라서 쉽지 않았다. 결국 1940년 5월에 3개의 단체만 한국독립당이라는 이름으로 합쳐졌다.

충칭 임시정부는 조직도 새로 가다듬었다. 돌아가면서 주석을 맡던 것을 고쳐서 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김구가 다시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주석이 되었다.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

“일본군에 있던 우리나라 군인들이 탈출해서 우리 편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김구가 동지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참에 우리도 광복군을 만듭시다.”

그 무렵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한창이었다. 김구는 마음이 바빠졌다.

“하루빨리 광복군을 만들어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땅에서 광복군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다. 김구는 지청천, 이범석과 함께 한국광복군을 만들기 위한 계획서를

장제스에게 보냈다.

“좋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 모두의 적입니다.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힘을 합칩시다.”

장제스가 돕겠다고 나섰다.

김구는 중국 정부만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임시정부는 지청천을 광복군 사령관으로, 이범석을 참모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1940년 9월 15일, 드디어 김구는 ‘한국광복군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틀 뒤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기념식을 열었다. 충칭에 있는 외국 대사관 사람들과 신문기자들도 참석한 큰 행사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세계 곳곳에 전해 졌다.¹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성립기념식을 마치고(중경 가릉빈관, 1940.9.17)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뭉친 연합군이 일본군과 싸웠다.

김구는 임시정부 회의를 열었다.

“광복군도 연합군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임시정부가 한 나라의 정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941년 12월 10일,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

“일본과 맺은 모든 조약은 무효임을 선언한다! 대한민국은 연합국과 힘을 합쳐 일본을 물리치는 데 앞장설 것이다!”

광복군은 중국 곳곳에서 연합군과 공동작전을 펼치면서 일본군과 싸웠다.

김구는 임시정부의 국제적인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녔다. 전쟁이 끝난 후 독립된 나라에서 임시정부가 자리를 잡으려면 꼭 필요한 일이었다. 김구는 충칭에 있는 각 나라의 영사관에 성명서를 보냈다.

‘임시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망명정부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한다. 전쟁 후 대한민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독립되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에게도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청하는 전보를 쳤다. 하지만 연합국들은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았다.

그 무렵 충칭에 살던 동포들이 병이 들어 목숨을 잃었다. 중국의 3대 아궁이라고 불리는 충칭은 안개가 많고 공기도 나뻑기 때문이었다. 김구는 나랏일 하랴 동포들 챙기랴 정신없는 나날

을 보냈다.

1942년에는 사회주의 쪽 독립 단체들이 임시정부에 합쳐졌다. 민족의 독립이라는 큰 목표 앞에서 모두 조금씩 양보한 결과였다. 김구가 그렇게 바라던 통합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다.

1945년 1월, 어느 날이었다.

“선생님, 저기, 창밖을 좀 보십시오!”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일본군에서 탈출한 젊은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리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김구는 얼른 창밖을 내다보았다. 가슴에 태극기를 단 50여 명의 젊은이들이 임시정부 청사로 오고 있었다. 광복군 소식을 듣고 떠나면 충칭까지 임시정부를 찾아온 젊은이들이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그들이 부르는 애국가가 충칭 거리에 울려 퍼졌다. 구경꾼들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김구는 청사 밖으로 달려 나갔다. 맨 앞에 있던 젊은이가 김구를 향해 경례를 했다. 김구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 주었다.

“고맙소. 장하오!”



그날 저녁 그들을 위한 환영회를 열었다. 한 청년이 말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 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몰랐습니다. 일본 유학 중 일본군에 끌려가게 되자,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충칭에 우리 정부가 있다고 하니, 찾아가서 독립 운동을 하다가 영광스럽게 죽어라.’ 라고요.”

젊은이들의 탈출 이야기는 동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광복군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도 대한민국의 광복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몇 달 뒤, 광복군은 미국 OSS(전략사무국)와 연합 작전을 펴기로 했다. 그 작전을 독수리 작전이라고 불렀다. 비밀리에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일본의 군사 기지를 파괴하고, 정보를 알아내는 활동을 하는 작전이었다. 광복군은 중국 시안에서 비밀 훈련을 했다.

1945년 8월 7일, 김구는 미군 책임자를 만났다. 두 나라가 공동으로 비밀 작전을 펼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비밀 훈련소에 가서 광복군의 훈련 과정을 지켜보았다.

광복군을 훈련 시킨 미국 교관이 말했다.

“많은 학생들을 훈련 시켜 봤지만, 광복군처럼 뛰어난 군인들은 처음 봅니다.”

김구는 광복군이 자랑스러웠다.



미국 OSS 도노반 국장과 국내진입작전을 협의하고 광복군 제2지대 정문을 나서는 김구
(서안, 1945.8.7)

10) ▶ [한국광복군 관련 전시로 이동하기](#)

4부 | 통일 운동의 길에서

1. 조국의 품으로

1945년 8월 10일, 저녁이었다. 김구는 잘 아는 중국 관리의 집에 초대받았다. 식사를 마쳤을 때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고 온 중국 관리가 소리쳤다.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이라니, 그게 참말이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터졌다.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이 또 터진 것이다. 일본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었지만 김구는 마음이 무거웠다. 공들여 준비한 작전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전쟁이 끝났다.

“일본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해방을 맞았구나. 독립된 나라에서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김구는 이후의 나랏일이 걱정스러웠다.

전쟁이 끝나자 충청 거리로 사람들이 몰려나왔다. 서로 얼싸 안고 춤을 추었다. 우리 동포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임시정부 청사도 시끌시끌했다.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빨리 돌아갑시다.”

“임시정부의 국무위원들은 모두 사퇴하고, 귀국합시다.”

그러나 김구의 생각은 달랐다.

“아닙니다. 우리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임시정부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국무위원 자격으로 귀국해서 국민들에게 임시정부를 바쳐야 합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환국기념(중경 임시정부 청사, 1945.11.3)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미군정이 들어서 있었다. 전쟁에서 일본을 이긴 미군이 점령군으로서 한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군의 점령 지역이 된 것이다.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시정부 사람들도 다른 동포들처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라고 했다.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김구는 차근차근 귀국 준비를 했다.

“마침내 돌아가는구나, 조국으로!”

독립운동가들의 무덤에 들러 작별 인사를 했다. 한인촌에도 들러 동포들을 안심시켰다.

“임시정부가 귀국하면, 곧 여러분의 귀국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와 아들 인의 묘도 찾았다.

큰아들 인은 1945년 3월 충칭에서 27살에 세상을 떠났다. 김인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김구를 도와 독립운동을 하다가 폐결핵에 걸렸다.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있었지만, 김구는 아들을 위해 그 약을 쓸 수가 없었다. 동지들도 쓰지 못한 약을 아들을 위해서만 쓸 수가 없었다. 김구는 그 일로 내내 괴로워했다.

김구는 어머니와 아들의 묘 앞에 꽃다발을 놓았다. 먼 남의 땅에 남겨 놓고 혼자 돌아가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김구는 임시정부의 문서를 잘 챙겨서 동지들과 상하이

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13년 만에 다시 상하이로 돌아왔다. 상하이 비행장이 지어진 곳은 홍커우 공원이 있던 자리였다. 상하이에 있던 수많은 동포들이 나와서 김구를 환영해 주었다.

김구는 단상에 올라 인사를 했다. 윤봉길이 폭탄을 던진 바로 그 자리였다.

“살아서 다시 동포들을 보니, 목이 맵니다.”

동포들이 울면서 외쳐댔다.

“대한 독립 만세!”



상하이 도착(강만비행장, 1945.11.5)

1945년 11월 23일, 드디어 미군정이 준비해 준 비행기에 올랐다. 김구와 임시정부 사람들이 탄 비행기가 천천히 하늘로 떠올랐다. 3시간 정도쯤 지났을 때 누군가 소리쳤다.

“저기, 저기, 우리 땅이 보입니다!”

모두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조국 땅이 멀리 내려다보였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누군가 젖은 목소리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비행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먹이면서 애국가를 불렀다.

김구는 그렇게 27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44살에 떠나 70살이 다 되어서 돌아왔다.

김구가 탄 비행기가 김포 비행장에 도착했다. 김구와 임시정부 사람들은 서울 서대문에 있는 경교장으로 갔다. 임시정부를 위해 어떤 사람이 자기의 별장을 내준 것이었다.

사람들이 경교장으로 몰려왔다.

“김구 선생님, 뵙고 싶습니다!”

경교장 밖 거리가 사람들로 꽉 찼다.

다음 날 24일에 김구는 라디오 방송으로 짧은 인사를 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27년 만에 조국의 강과 산을 보니 가슴이 벅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남은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김구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12월 19일에는 서울 운동장에서 임시정부 환영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태극
기를 흔들었다.

우렁찬 김구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을 이룰 때입니다.
모두 함께 자유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듭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환국 축하 시민행진(1945.12.19)

4부 | 통일 운동의 길에서

2. 신탁 통치 반대 운동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수선했다. 38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 있었다. 일본과 싸워 이긴 힘센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랏일을 보려고 했다. 미군정은 미국과 뜻이 맞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정부를 만들고 싶어 했다.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두 나라 모두 다른 속셈이 있었다. 그래서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다.

여러 곳에 흩어졌던 독립운동가들도 이제 모두 나라 안에 모였다. 그들은 해방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서로 생각이 달랐다. 남쪽에서도 민족주의 쪽과 사회주의 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었다.

김구는 안타까웠다.

“허허, 이래서야 제대로 나라 꼴을 갖출 수 있을까. 다 함께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김구는 친일파를 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1945년 12월 28일에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열렸다.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여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했다.

‘한반도에 임시 민주 정부를 세운다. 그리고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은 임시정부 수립을 돕기 위해 최대 5년까지 신탁 통치를 한다.’

신탁통치는 국제연합(UN)이 정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제도다. 우리나라가 민주 정부를 세울 때까지 몇 년 동안 다른 나라가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곧바로 독립하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다. 신탁 통치는 다시 식민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온 나라가 별집을 쭈서 놓은 듯했다.

“말도 안 돼! 신탁통치라니.”

“일본이 물러가니까, 이제는 미국이 다스린다고!”

많은 국민이 신탁통치를 반대했다.

김구도 분노했다.

“왜 우리가 또 남의 간섭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김구는 우리 국민 스스로 나서서 우리의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중심 역할을 임시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구와 이승만은 신탁 통치 반대편에 섰다. 그런데 신탁 통치를 반대했던 사회주의 쪽 사람들이 뒤늦게 찬성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싸움을 벌였다.

12월 31일, 서울 운동장에서 신탁 통치 반대하는 모임이 열렸다. 매서운 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김구가 힘차게 외쳤다.

“우리 민족 스스로가 자주 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 국가를 세워야 합니다!”

김구는 생각이 달라도 지금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지도자들을 부지런히 만나러 다녔다. 그러나 그의 바람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이 나라를 어찌해야 할까.”

김구는 잠시 나라 곳곳을 돌면서 마음을 가다듬기로 했다.

1946년 봄, 김구는 인천에 들렀다. 인천 감옥은 예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김구는 아들을 보려고 어머니가 오가던 길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남아 있는 것만 같았다.

중이 되어 머물렀던 마곡사에도 가서 무궁화와 향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집에 들렀다가 서울로 돌아왔다.

김구는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일을 서둘렀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이 아직 남의 땅

에 묻혀 있어. 그분들을 하루빨리 우리 땅으로 모셔 와야 해.’

일본에서 이봉창과 윤봉길, 백정기의 유골을 모셔 왔다. 그리고 해방을 얼마 남기지 않고 중국에서 죽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유골도 모셔 왔다. 효창원에 독립운동가들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을 만들었다.

“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이 한 몸을 바칠 것입니다. 그러니 동지들은 이제 조국 땅에서 편히 쉬십시오.”



신탁통치 반대 시위 현장에서 김구



신탁 통치 반대 시위 현장(서울운동장,1945.12.31)

4부 | 통일 운동의 길에서

3. 38선을 넘어



신탁통치 문제로 나라가 소란스러웠다. 그러자 미국과 소련은 남과 북에 따로 정부를 세우려고 했다.

이승만도 미국과 생각이 같았다.

“어차피 통일 정부가 어렵다면, 남한에라도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구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남쪽에 단독 정부를 세우면, 북쪽에도 단독 정부를 세울 테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둘로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같은 민족끼리 피 흘리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로 나누어진 우리나라는 서로 점점 멀어져갔다. 1948년 2월, 김구는 ‘삼천만 동포에게 눈물로 호소함’이란 글을 발표했다.¹¹⁾

‘마음속의 38선을 무너뜨려야, 땅 위의 38선도 무너질 것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를 세우는 일을 도울 수는 없다.’

김구는 단독 정부를 세워 둘로 나뉜 나라가 서로 싸울까 봐 걱정스러웠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

김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북쪽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편지를 보냈다.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같이 의논해 보자고 했다. 한 달이 넘어서 평양 방송을 통해 답장이 왔다. 북한은 4월 평양에서 남북의 여러 단체의 대표가 만나는 연석회의를 하자고 했다.

남북회담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김구를 말렸다. 북으로 가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김구의 의지는 꺾였다.

“38선은 남의 나라가 만들어놓은 것이요. 그런 38선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말 한번 못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요.”

하지만 남북회담 날이 되었지만, 김구는 경교장을 나설 수가 없었다. 청년들이 김구가 타고 갈 차를 막아섰다.

“선생님, 못 가십니다! 가시면 못 돌아오십니다.”

어떤 청년은 이렇게 소리쳤다.

“공산주의와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김구는 2층 베란다로 올라가서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공산주의자라고 말조차 꺼내 보지 못한다면 통일을 어찌 이루겠소. 나는 꼭 가야겠소. 이것이 나의 마지막 독립운동이요!”

결국 김구는 경교장 뒷담을 넘어 겨우 빠져나왔다. 배에 차를 싣고 임진강을 건너 38선 끝말 앞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이번 길이 성공하리라고 보십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야 있겠소. 같은 민족이 싸우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든 만나서 얘기를 나눠 봐야지요. 어서 갑시다.”

김구는 서둘러 38선을 넘었다. 힘들지만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을 나섰다. 그의 나이 73세였다.



歷史的刹那

三八線上 金九先生一行

朝鮮通信社・李志水特派記者提供

38선에서(경기도 여현, 1948.4.19), 왼쪽부터 선우진, 김구, 김신

1948년 4월 22일, 평양의 모란봉 극장에서 남북의 정당 대표들이 참석한 ‘남북연석회의’가 열렸다. 김구가 축하 연설을 했다.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이 없으면, 당도 단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통일된 독립 국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김구는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구의 목소리가 모란봉 극장에 울려 퍼졌다.



남북연석회의에서 축하하는 김구(평양 모란봉 극장, 1948.4.22)

김구는 5월 5일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후 남한과 북한에는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영영 갈라지고 말았다.

새 정부가 자리를 잡자 통일은 점점 더 멀어졌다. 통일을 외치는 김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특히 새 정부에서 높은 자리를 맡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통일된 조국에 대한 김구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다.

“나는 통일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오. 통일은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오.”

해가 바뀌어도 김구의 소원은 늘 같았다. 조국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 바로 그것이었다.

1948년 어느 겨울, 김구는 서울의 가난한 동네를 찾았다. 아이들이 해진 옷을 입고 햇살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김구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가난해서 아이들이 배움을 그만두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김구는 마을에 큰돈을 내놓았다. 중국에 있던 어머니와 아들의 유골을 옮겨 왔는데, 그때 들어온 조의금이었다. 둘째 아들 신이 결혼할 때 들어온 축의금도 보탬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중간에서 내 친구들의 심부름을 한 것뿐입니다.”

그 돈으로 백범학원과 창암학교가 세워졌다. 창암학교 운동회 날, 김구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1) ▶ [자주·통일 국가 수립 관련 전시로 이동하기](#)



4부 | 통일 운동의 길에서

4. 400명의 어린 백범이 되어



1949년 6월 26일이었다. 눈부신 햇살이 경교장 2층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다. 김구는 책을 읽다가 붓을 들었다.

그때 육군 소위 안두희가 들어왔다.

“땅 땅! 땅땅”

네 발의 총성이 울렸다. 비서가 놀라서 뛰어올라가다 총을 든 안두희와 마주쳤다.

“내가 백범 선생을 쏘았소.”

“뭘, 뭘요!”

올라가 보니, 김구가 피투성이 된 채 쓰러져 있었다. 의사가 달려왔지만 고개를 저었다. 백범의 나이 74살이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경교장으로 달려왔다.

“선생님, 선생님!”

“김구 선생님을 돌아가시게 한 놈의 뒤에 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안두희는 잡혀갔다가 훗날 다시 육군 대위가 되었다. 김구를 미워했던 권력자들이 안두희에게 김구를 제거하라고 시켰다는 소문이 돌았다.

1949년 7월 5일, 김구의 장례식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태극기로 감싼 김구의 유해는 경교장을 떠나 서울 운동장으로 향했다. 청년, 노동자, 농민, 상인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이 서울 운동장에 모였다. 그들은 독립운동가이자, 통일을 위해 온 마음을 바쳤던 김구의 죽음을 함께 슬퍼했다.

김구는 효창원에 모셔져 있던 동지들의 곁에 묻혔다. 김구의 유해가 효창원으로 갈 때 나부꼈던 깃발에 글 한 편이 적혀 있었다. 백범학원 아이들이 김구에게 쓴 편지였다.

할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정말 슬퍼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는 어리지만, 할아버지의 뜻을 가슴에 새길게요.

여기, 어린 400명의 백범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 국민장 행렬 1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 국민장 행렬 2



효창원에 모셔진 백범 김구 선생의 묘

백범일지

초판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저자	글 주미경, 그림 원유미
기획	백범김구기념관
발행처	백범김구기념관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김구재단
주소	(04311)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효창동)
대표전화	02-799-3400
팩스	02-718-1311
홈페이지	www.kimkoomuseum.org
ISBN	979-11-87557-03-6 (EPUB2)
가격	비매품

저자와 백범김구기념관의 허락 없이 내용 일부를 수정,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